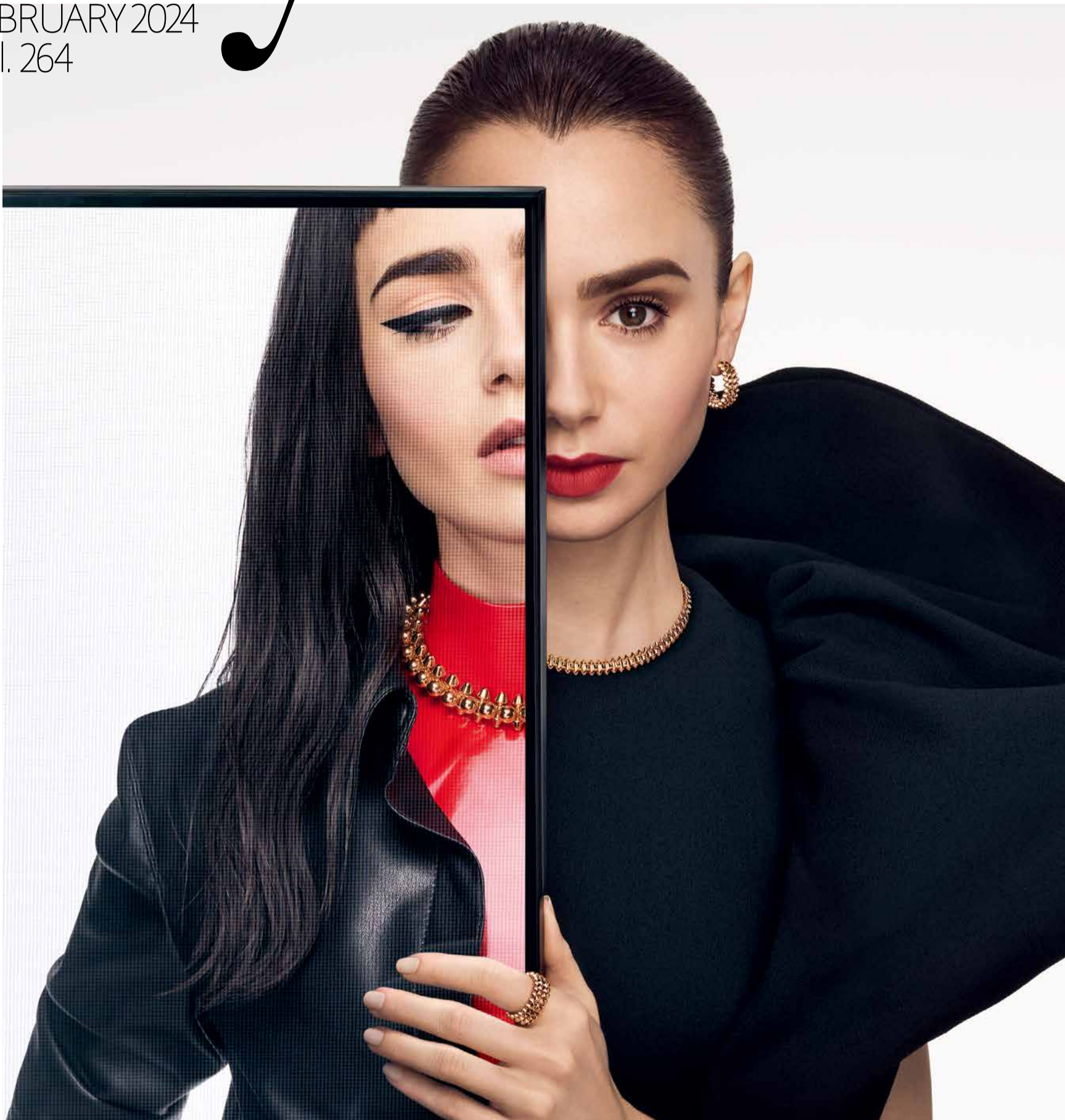


# Style

조선일보

FEBRUARY 2024  
vol. 264



CLASH  
DE  
*Cartier*



# Van Cleef & Arpels

## Time, Nature, Love

시간, 자연, 사랑

Curator 큐레이터 · Alba Cappellieri 알바 카펠리에리  
Designer 디자이너 · Johanna Grawunder 요한나 그라운더

패트리모니얼 전시

2023.11.18 - 2024.04.14



Van Cleef & Arpels

D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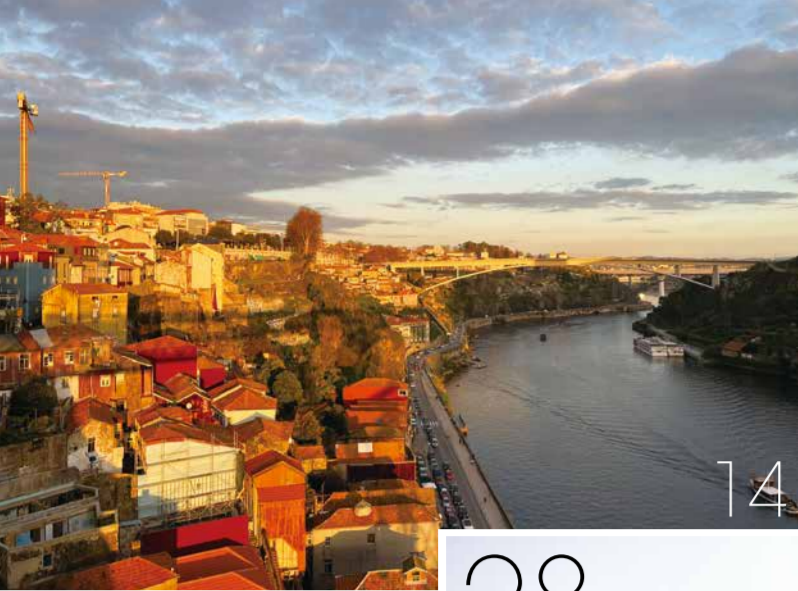




"BEAUTY LIES IN THE DETAILS OF THE GRANDEST STRUCTURES, AND THE FINEST."

ORA ĬTO,  
CREATOR OF SHAPES,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TRADITIONNELLE.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 NOT MANY.



28

**Style** 조선일보

두 얼굴의 주얼리로 정의할 수 있는 클래식도 까르띠에는 기하학적 라인을 통해 메종의 클래식한 DNA를 계승함과 동시에 피코 장식과 스타드를 통해 과감한 핑크 스타일의 미학을 드러낸다. 문의 1566-7277



08

- 11 **COLOR CRUSH** 시간을 확인하는 즐거움이 배가된다. 오색 빛깔 이름 다음을 발산하는 컬러 다이얼 워치 6.
- 14 **A NEW WAY OF THINKING** 인구 23만여 명, 인근 지역을 합쳐도 1백70만 명 정도에 불과한 아담한 항구도시 포르투. 요즘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행지 중 하나로도 꼽히는 이 도시는 길게 뻗은 도루강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역사 자구가 있는 포르투 시내, 그리고 남쪽에는 빌라 노바 드 가이아(Vila Nova de Gaia, 이하 가이아) 지역이 각각 자리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역사 자구를 품은 북쪽에는 포르투 대성당을 비롯해 볼사 궁전, 버스킹 명소로도 알려진 히베이라 광장, 푸른 타일로 내부를 단장한 아름다운 기차역 상벤투, 한때 이 도시에 거주했던 작가 조앤 롤링의 세기적 베스트셀러 <해리 포터>에 모티브를 제공했다는 입소문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렐루(Lello) 서점 등 볼거리가 많다. 변화는 오히려 문화적으로 축적했던 남쪽에서 일어났지만 말이다. 가이아 지역에 생겨난 복합 문화 단지 WOW 이야기를 시작한다.
- 18 **ARTIST IN FOCUS** 일상의 움직임 속에서 '예술'에 차별하게 헌신하는 인문가 이양희의 춤과 유쾌미 작가의 아름다운 화폭.
- 19 **FLOWER GARDEN** 여자의 마음을 살리게 하는 꽃과 주얼리의 만남.
- 20 **ETERNAL LOVE** 지금으로부터 1백 년 전, 대표적인 하이 주얼리 메종 까르띠에에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주얼리가 탄생했다. 한 세기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트리니티 링이 그 주인공이다.
- 22 **BRILLIANT MODERNITY** 사별 고유의 모던함과 세련미가 공존하는 코코 크러쉬 컬렉션. 미니 브레이슬릿을 추가해 더욱 다채롭게 완성하다.
- 28 **LOVE STORY** 사랑하는 이와 외의 고귀한 사랑, 그 아름다운 순간.
- 40 **WHITE EFFECT**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깨끗한 화이트의 매력.
- 41 **FOR MAVERICKS** 브랜드의 탄탄한 헤리티지와 클래식함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를 창조해내는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MCM이 새로운 2024 S/S 캠페인을 공개했다.
- 42 **EXPLORE AMERICAN ART** 서울에 국립 현대미술관이 있다면, 채터누기(Chattanooga)에는 헌터 뮤지엄(Hunter Museum of Arts)이 있다. 미국 남부의 소도시 채터누기에서 어떻게 예술의 공간이 탄생하고 자리 잡아가는지 추적해본다.
- 44 **ROMANTIC DUO** 사랑의 추억은 향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은밀하고 낭만적인 교감을 고조시켜줄 너와 나의 향.
- 45 **FEEL SO GOOD** 잠에 머무는 시간이 더욱 즐거워지는 마법, 홈 데커레이션 아이디어.
- 46 **EDITOR'S PICK** 기분에 충실한 뷰티 제품으로 구성된 최상의 피부 솔루션.

# Style 조선일보

Issue.264 February 202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상영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정교,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재판 | 리온 인쇄 | 티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빙간로 413 현대 하이패션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http://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GRAFF.COM



TILDA'S BOW

G R A F F



1 여성스러운 곡선 실루엣의 선더스 39214  
천원 비버리 by 에실로레스티카, 2 총 1.37mm의 52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들 그랑수아 타임피스 36mm  
가격 미정 다들 타임피스, 3 섬세한 레이스 디테일이 돋보이는 드레스  
가격 미정 알리사브로이델 by 소유브라이델, 4 폭신한 느낌을 주는 레  
더 소재의 비브 쇼크 백 화이트, 24X12.5X8cm, 5백40만원 로저 비버리,  
5 중심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1895 스퀘어퍼 링 가  
격 미정 카르디에, 6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코스모스 마디엄 모델 플립 펜던트 1  
천9백30만원 빈클리프 아펠, 7 귀여운 느낌을 부여하는 에-멜 메탈 헤어 클립 47  
만원 마우미우, 8 라본 디자인이 어디에나 포인트가 될 실크 트윙 소재 헤어핀 가격  
미정 사벨, 9 신선한 맛과 향이 특징인 판타스틱 사프 세인트 마가렛 750ml 62만  
원 세인트 마가렛 앙 프루방스 by 페르노카코리아, 10 우아한 느낌을 배가하는 화  
이트 골드 소재의 로리에 헤드 와인잔트 7천만원대 쇼세, 11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다이얼링 칼텍션 이어링 4천47만원 쇼퍼드, 12 총 2,267컷  
의 62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세팅 보렐 멀티 모티브 브러쉬 2천만원대  
부쉬론, 13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캐논, 39X23X55cm, 1백14만원 리모와,  
14 잔치를 스와르브스키 크리스탈로 완성해 화려한 매력을 선사하는 크리스탈  
슬리퍼 85 9백93만4천원 지미추, 15 부드러운 램 스킨으로 제작한 알바 BB,  
23.5X11.5X17.5cm, 5백60만원대 루이 비통.

소유브라이델 02-541-7077 에실로레스티카 02-501-4436 로  
저 비버리에 02-6905-3370 다들 타임피스 02-3280-0104 까  
르디에 1877-4326 빈클리프 아펠 1877-4128 마우미우  
02-541-7443 쇼세 02-3442-3359 사벨 080-805-  
9628 페르노카코리아 02-3466-5700 쇼퍼드  
02-6905-3390 부쉬론 031-5170-1177 리  
모와 02-546-3920 지미추 02-3443-  
9469 루이 비통 02-3432-1854

# for her Selection

눈부신 광채를 뽐내는 주얼리와 우아한 드레스, 그리고 러블리한  
패션 아이템까지.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위한 브라이덜 에센셜 아이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 sang

1) 인체 적용 시험으로 피부를 확인했음을 의미 2) 자사 최초 3) 자사 최초



## DUAL REPAIR LIFT CREAM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



### 클리니컬 듀얼 액션 리페어 & 리프트

피부 특수 케어 기술 최초<sup>2</sup> 융합  
고강도 케어 후 피부 탄력 +213%<sup>3</sup>, 손상 장벽 회복 +202%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은 피부 특수 케어용 고효능 성분과 기술을 최초<sup>2</sup> 융합한 고성능 안티에이징 솔루션입니다.  
AP 독자 개발 성분 PDRN과 EXOYNE의 혁신적 시너지로 데일리 사용만으로도 특수 케어급 리페어 & 리프팅 효능을 선사하며,  
고강도 케어 후 사용 시 일반 크림 대비 2배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1 코트 소재의 포플린 클래식핏이 브릭 셔츠 90만원, 울 모헤어 소재의 셀튼 이브닝 피크 라벨 턱시도 8백40만원, 실크 보타이 40만원 모두 **플포드**. 2 심플한 버클이 특징인 카브 스킨 소재의 벨트 1백71만원에 **크레스**. 3 스틸 케이틀과 타이틀 소재로 완성한 포스텐 원치 펜던트 27만원 **프리트**. 4 딥 블랙 컬러의 라이트 레진과 크롬 링으로 디자인된 대한 몽블랑 MTB 03 인이어 헤드폰 55만원 **몽블랑**. 5 로즈 골드 소재의 티파니 T 스퀘어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티파니**. 6 실크 보타이 20만원 **할프 로렌 퍼플 라벨**. 7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블랙 컬러 다이얼의 하모니가 눈길을 사로잡는 인제-어 오토매틱 40 1천4백30만원 **IWC**. 8 편안한 그림자를 자랑하는 몽블랑 그라티트 카라터 무어리드 일리프 스페셜 에디션 1백65만원 **몽블랑**. 9 실버 메탈에 크리스탈 장식을 다한 이브닝 백합 브로치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10 도화선인 매력을 보여주는 선글라스 30만4천원을 줄 **채널가비나 by 에실로르스타카**. 11 은은한 로고 패턴으로 장식한 이스트 웨스트 백, 40.5X35X12cm, 가격 미정 **디올 맨**. 12 송아지가죽 소재의 딥 1백29만원 **페타카모**. 13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클래식 레지스 카브 스퀘어 가격 미정 **소파드**. 14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패배 세팅한 비저리얼 링 9백50만원 **볼가티**. 15 사티우드 오일 베이스에 솔잎 향을 다한 바버리 하이라이드 퍼프 50ml 13만9천원 **바버리 뷰티**.

**플포드** 02-6905-3534 **에르메스** 02-542-6622 **프리트** 02-514-3721 **몽블랑** 1877-5408 **티파니** 02-6250-8620 **할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IWC** 1877-4315 **알렉산더 맥퀸** 02-6105-2226 **바버리 뷰티** 080-850-0708 **볼가티** 02-6105-2120 **에실로르스타카** 02-501-4436 **소파드** 02-6905-3390 **페타카모** 02-3430-7854 **디올 맨** 02-3280-0104

for him  
Selection

신사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웨딩 맨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Color Crush

시간을 확인하는 즐거움이 배가된다. 오색 빛깔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컬러 다이얼 워치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  
IWC 파렐렛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18K 5N 골드 재질 41mm 케이스와 그린 다이얼의 조합이 매력적인 매력 을 뽐낸다. 시, 분, 초 단위 크로노그래피 인디케 야를 같은 컬러로 통일해 심플한 느낌을 배가했다. 자체 제작 68385 칼리버로 구동하며, 46시간의 파워 리 저브를 자랑한다. 2천4백만원. 문의 1877-4315 **브라운링 내비게이터 B01 크로노그래프 43** 스틸 케이스에 하늘을 연상시키 는 아이스 블루 다이얼과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슈퍼루비네어 이방 인 텍스를 조화롭게 매칭한 것이 특징이다. 자사 제작 칼리버 아를 장착했으며, 무려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1천3백69만원. 문의 02-792-4371 **카르티에 발루 드 카르티에** 불룩한 양면을 강조한 40mm 케이스에 다크 그레이 태양 광선 모티브 브라운 다이얼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전하는 동시에 핑크 골드 케이스 와 조화를 이룬다.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인 1847 MC 칼리버로 구동한다. 2천8백만원대. 문의 1877-4326 **파넬라이 루미노르 듀에 파스텔로** 38mm 케이스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파스텔 라이트 핑크 다이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다이얼에는 이방 차원인 아르바이트자 및 아워 마커가 자리하며, 3시 방향에 날짜창, 9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가 위치한다. 오토매틱 기계식의 P.900 칼리버를 장 칩했다. 1천만원대. 문의 1670-1936 **에르메스 이브닝 스피드 룬 씨엘 에뛰얼** 검은 바탕을 연상시키는 그라데이션 블루 라인과 천연 자개로 다이얼에 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0시 30분 방향에 문패이 조각 위치하며, 자사 매뉴 팩처 H1937로 구동하고,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822 **태그호이어 카루와 데이브 36mm** 평탄 컬러링의 바이브라던트 핑크 다이얼과 로동 도금한 인렉스의 깔끔한 조화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36mm 스틸 케이스 에 칼리버 750태터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4백65만원. 문의 02-548-6020. 에디터 **윤지영**

이시영 사진



# TEA LOVER

차 한잔의 이유를 선사할 스타일러서한 메그 3.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싱그러운이 느끼는 그린 컬러로 착한 달걀을 크리스탈로 장식한 로제탈 메그 28만5천원 **스피로보스키**, 문의 02-6911-0883. 매혹의 시그처 컬러 오렌지 컬러에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진 포슬린 소재 워터 인더 거든 컬렉션 메그 27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타쿠아즈 블루 컬러 헤비톤 페탈을 더한 화이트 메그 50만원대 **구찌**, 문의 02-3452-1521 포토그래퍼 **최만정** 인턴 에디터 **신정일**

## LITTLE MONSTER

다음이 킵 존스와 현대미술계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자랑하는 일본 아티스트 오타나와 협업해 탄생시킨 특별한 캡슐 컬렉션 디올 & 오타나 워크숍(DIOR & OTANI WORKSHOP)을 선보인다. 이번 캡슐 컬렉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랑한 조가 오타나가 디자인한 작은 초록색 고를 캐리러, 오타나의 이름을 따 타갈라(TANILLA)라 불리는 이 캐릭터는 이번 컬렉션에서 선보일 스웨터, 쇼트 슬리브 티셔츠, 보머 재킷뿐 아니라 새로운 B33 하이톱 테니스 슈즈 등에 장식되어 있다. 이 특별한 캡슐 컬렉션의 제품들은 디올 부티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02-3280-0104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봄, 화려한 유혹

반클리프 아펠의 프리블 주얼리 컬렉션에 눈부신 광채를 선사하는 5개의 새로운 피스를 추가했다.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로즈 골드 비드윈 더 핑거링,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의 조화가 돋보이는 8개 플라워 링이 포함된다. 특히 컬렉션 최초로 8개의 플라워를 세팅한 링은 서로 다른 소재를 조합해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배가한다. 특히 로즈 골드 소재로 완성한 5개의 꽃은 각기 다른 높이로 섬세하게 배치되어 더욱 풍성한 느낌을 선사한다. 문의 1877-4128



## POWDER WONDER

모공 깊숙이 자리한 노폐물까지 밀끔하게 씻어줄 파우더 클렌저.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카텔 레어스 파우더 클렌저** 이마존 화이트 클레이 성분으로 피지 유분을 흡수하며, 정도에 따라 마스크 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0g 4만9천원대, 문의 080-022-3332 **연리 잔조 데일리 풀 먼 엑스플라워트** 울과 섞으면 풍성한 거품으로 부드러운 클렌징이 가능하며, 밀착 파우더에 연한 핑크색을 더해 피부 유 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 80g 4만원, 문의 1644-4430 **미에트 리프라이싱 케어 클렌징 파우더** 버섯 효소 추출물을 담아 피부 항상성을 높이고 페퍼민트 오일 성분으로 세안 시 물결감을 선사한다. 50g 4만5천원, 문의 070-8676-3432 **시슬리 엑스플라워트 필 앤자임 마스크** 등 피부와 코르크에서 추출한 천연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 있어 파우더에 미세한 거품이 일어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할 수 있다. 40g 15만원, 문의 080-549-0216 포토그래퍼 **최만정** 인턴 에디터 **신정일**

## TIME TO DISCOVER!

올 초 서울의 갤러리 풍경을 보면 다양한 한국 작가 전시가 눈에 띈다. 서울 도산공원 근처에 자리한 페로탕 서울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기하학적 추상 회화의 세계를 독창적으로 구축해온 이상남(b.1953) 개인전 <마음의 형태(Forme d'esprit)>를 개최하고오는 3월 16일까지, 한남동에 위치한 리면마린 서울은 유규미, 한남, 권간민, 임미애가 참여하는 4인 그룹전 <현대랜드>를 꾸리고 있다(2월 2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빈우혁 작가의 신작 회화를 선보이는 개인전 <엇따지 사냥(Die Eberjagd)>은 역시 한남동에 있는 갤러리버튼에서 진행 중이다(2월 17일까지). 타데우스 로박 서울은 현대미술 작가 6인(제시 천, 정유진, 권중주, 이혜민선, 남희연, 양유연) 단채전 <노스탤지스 온 리얼리티(Nostalgics on realities)>를 개최한다(3월 9일까지). 청담동에 자리 잡은 김리아갤러리에서는 17명의 작가가 참여한 단채전 <Small Paintings - My Bijou>가 열리고 있다(2월 29일까지). 이지는, 노보, 이슬아, 김찬재, 황도유 등의 작가가 그린 '작은' 그림에 담긴 저마다 숨겨진 이야기와 의미를 공유하며 전시 제목이 암시하듯 '나만의 보석'을 찾아볼 것을 제안한다. 글로벌 경기 한파로 전반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사정이지만 미술품 컬렉터들의 보석 발굴 작업에는 외려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 운명적 만남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사넬의 코코 크러쉬 컬렉션은 둥근 표면에 새겨진 깔끔하고 균일한 절개 디자인이 특징으로, 각각의 피스에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멋을 부여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2024년, 코코 크러쉬 컬렉션에서 새로운 미니 브레이슬릿이 베이지 골드,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버전을 출시했다. 특히 이번 신제품에서 눈여겨볼 점은 하우스의 독자적인 인버터를 화전 잠금장치인 코코 트윈스트를 추가한 것. 한번의 동작으로 쉽게 착용할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 PEACE INSIDE

유려한 형태와 매력적인 질감, 고급스러운 소재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 로로피어나가 새 시즌 광고 캠페인을 선보인다. 마리오 소네티노가 카바리를 잡고 샬레나 포레스트, 진스-글로워, 아모르 오디앙, 라벤 반 롬페이, 벤지수가 모델로 참여했다. 이번 2024 S/S 시즌은 로로피어나가 추구하는 조화와 균형을 입체적인 감각으로 표현했다. 특히 인공과 자연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은 이번 캠페인은 인공적인 것을 배제하고 동양적인 곡선의 느낌과 포즈 등으로 정제된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영상사하는 화화적이고 밀도 높은 이미지들은 기쁨, 따스함, 평화로움을 자아낸다. 문의 02-6200-7796

## 나비의 꿈

아름다움을 향한 헌신과 디테일을 향한 집념, 공예 기술을 향한 끝없는 도전들 바탕으로 늘 창조적(면서도 놀라운 주얼리를 선보이는 하이 주얼리 그라프, 특히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와이드 플라워 나비 컬렉션은 마치 실제와 살아 있는 꽃과 나비인 듯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으로 주목받는다. 가장 최근에 그라프에서 선보인 피스는 버터플라이 컬렉션의 네크리스. 버터플라이 컬렉션 멀티 셰이프 파베 다이아몬드 네크리스로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5.85캐럿의 라운드 컷과 마크즈 컷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완성한 50리의 나비가 돋보인다. 나비의 사이즈와 위치를 불규칙적으로 배치해 마치 날아오르는 듯 생생한 감성을 표현했으며, 섬세하고 디테일한 세팅이 돋보인다. 무수한 다이아몬드로 볼륨감 또한 만족시켜 줌에 포인트를 주기에도 충분하다. 8천3백49만원. 문의 02-2256-6810

## REFINED TIME

바세론, 콘스탄틴에서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인 오버사이즈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 워치를 출시했다. 오버사이즈 컬렉션 최초로 화이트 골드 소재와 워치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블루 다이얼, 그리고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을 조합했다.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를 자아내는 42.5mm 케이스의 워치는 투르비용을 갖춘 울트라-신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인 인하우스 칼라버 2160을 장착해 더욱 슬림한 곡선을 그려내는 동시에 무려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또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브레이슬릿과 스트랩 3개를 제공하는 높은 활용도를 자랑한다. 문의 1877-4306



## Lucky Day

언제 어디서나 행운의 행운을 불러오는 큐트 액세서리.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드러운 트라움 브러시 소재 몽유와 반형의 의미를 담은 2024 CNY 컬렉션 마법형 참 28만원 **모아나**, 문의 02-2254-4150. 자연과 동심의 의미를 지닌 로베(수나 후자) 컬렉션 선 제품을 지난 3월 7일 7만원 **로베**, 문의 02-3479-1785. 자연의 상징이자 수호신을 의미하는 부엉이를 모티브로 한 앙리족 소재 포인트 백 액세서리 8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포토그래퍼 **최만정** 인턴 에디터 **신정일**



### 도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불어넣은 발상의 전환



### #포르투의 두 얼굴 도루강을 중심으로 나뉜 두 지역, 그리고 평온함과 진취성

- 누군가는 정치적 경계라고도 하지만 도루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확연히 나뉘어 있는 포르투의 두 지역을 보면 재미나다. 이 작은 도시에서도 '난 포르투에서 왔어?', '난 가이아 출신이야'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포르투 중심부와 가이아 지역을 잇는 다리가 여럿 있는데, 그중 가장 돋보이는 건 아무도 아가들 보이는 '동 루이스 1세 다리(Ponte de Dom Luís 1ª)'라는 철교(루이스 1세 다리라고도 불린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 탑을 설계한 귀스타브 에펠의 제자인 벨기에 건축가 테오필드 세이리그의 작품인데, 도로가 위아래로 연결된 이층교로 385.25m 길인 상층은 7미터가 넘는 철로와 보행자용 도로를 겸하고 있어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날이 맑은 날, 이 다리 위에서 도루강과 더불어 포르투의 풍경을 보노라면 이 도시는 전혀 작아 보이지도 않고, 매우 파워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차분한 분위기의 도시는 데는 동의하지만,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강에는 애수만 흐르는 게 아니라 대항해시대의 진취적 기개 역시 스며들어 있는 듯하다).

- 포르투는 고대 로마의 전초 기지이며 대항해시대의 해양왕으로 불리는 안토니오 데 아우타도 한, 오래된 정체성을 지닌 도시다. 포르투에 대한 '변하지 않는', '남았지만 정겨운' 도시라는 이미지는 이처럼 깊은 역사의 뿌리에 얽혀 있기도 할 것 같다. 하지만 근현대사의 굴곡진 이목을 지닌 포르투갈의 다른 도시들도 그렇지만 이 도시는 정체가 오랫동안 안 지속됐고, 포르투 지역 출신의 건축가 알바로 시자(Álvaro Siza)의 발원을 살펴보면 이는 어쩌면 허물없이 고요함 속에서 살았던 것까지도 모르겠다. 강이동 건물 사이로 도루강이 보이는 포르투 건축대학(FAUP)든지, 고즈넉한 주택가에 자리한 날찍한 공원 부지에 있는 세헤스 미술관 같은, 은은하게 도시성을 반영하는, 그가 설계한 건축물들이 팔자의 마음에 와닿는 이유일 것이다. 도시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은 도시의 전체 모습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처럼 시자의 건축은 간접적이긴 하지만 결코 간과하지는 않은 우아한 시적 리듬감을 지니고 있고, 주위의 맥락을 참차연스럽게 담는다.

### #WOW, All about Wine 건조했던 가이아 지역의 풍경을 바꾼 '변화'

- 단지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포르투라는 도시에 이름다음은 보다는 풍요로운 문화적 자산을 시대를 막론하고 대다수가 강박에 집중되었지는 점이다. 해가 질 무렵이면 형용하기 힘든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오후 빛으로 물든 하늘과 미려한 강변의 풍경을 유유자적 즐기면서 루이스 1세 다리를 도보로 건너도, 강 남쪽인 가이아 지역에는 주로 포도 와인을 수확하는 창고가 물려 있을 뿐 '빈' 문학적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다. 그런데 바로 이 와인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가이아 지역 일대에 놀라운 정도로 변화를 불어넣은 공간이 나타났다. 2020년 8월 문을 연 'WOW(World of Wine)', 거의 9천 평에 이르는 넓은 부지에 와인 저장소가 모여 있던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관련 초와 미식, 쇼핑, 호텔 등을 한데 묶은 체험형 복합 단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WOW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곳 간 전력을 흐르는 키워드는 '와인'이다. 생각해보면 포도 와인(port wine)은 도시 이름이 와인 명칭이 된 몇 안 되는 사례가 하나다. 가이아는 포도 와인의 보고라고 말이다.

- 이처럼 정성성을 살린 변화의 주체는 더 플라게이트 파트너십(The Fladgate Partnership)이라는 영국 자회사로, 이 그룹의 모태는 1692년 창립된 테일러스 포트(Taylor's Port). 포도 와인 애호가라면 익숙할 만한 브랜드다. 플라게이트는 1588년 창립된 크로프트 포트(Croft Port), 폰세카(Fonseca), 크론(Kronn) 등의 브랜드를 거느리며 1백50여 개 이상에서 판매되는 포도 생산의 선두 주자. WOW는 맨체스터 시가 오랜한 탓에 초기에는 주로 내국인 방문객을 맞이했지만, 시에서 자부심을 신음하게 했던 장막이 걷히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맞이하고 있다. 지금은 각종 매체에서 찬사를 받고, 새로운 관광 자유로서의 인기도 한 몫에 누리고 있지만,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회원이 팽배했다. "이것이 가이아 비보 같은 이디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단지 내 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플라게이트 CEO 에드워드 브리지(Adrian Bridge)는 인피리를 울리며 상투 미소 지었다. "WOW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일이 있었을까라면서 말이다."

### WOW\_포르투의 복합 문화 단지(The Cultural Distr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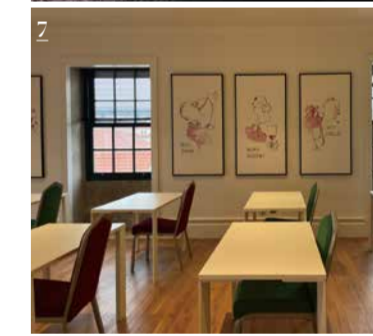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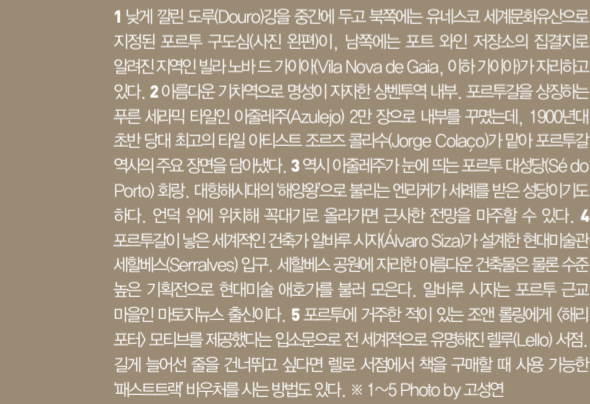
# A New Way of Thinking

### 맑고 진진한 애수가 흐르는 도루(Douro)강의 도시에서

- '오 소금이 바다여, 너의 소금 중 얼마만큼이 포르투갈의 눈물인가? 너를 건너너라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눈물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질없이 기도했단까 페르난두 페소아(1888~1935)는 자신의 시 '포르투갈의 바다에서 이렇게 읊조렸다. 실제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단인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한 작은 나라 포르투갈은 망명대배(대사양)의 거센 파도를 마주하며 오랜 세월 동안 갖은 시련과 모험의 여정을 거쳤다. 화려한 전성기도 누렸다. 자기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절, 인근의 강력한 국가 카스티야(캐스피안) 명을 거치지 않고서는 유럽으로 나갈 수 없던 포르투갈인은 15세기와 16세기에 걸쳐 바다와 맞서며 영토를 확장해 대항해시대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후발 열강들의 탐구니 속에서 힘을 잃었고, 20세기 들어서는 40년 남게 '자발' 독재 정권으로 신음하며 농업 국가에 머문 탓에 일차리를 찾아 떠난 수많은 이민자를 양산했다. 포르투갈 최대 수출품은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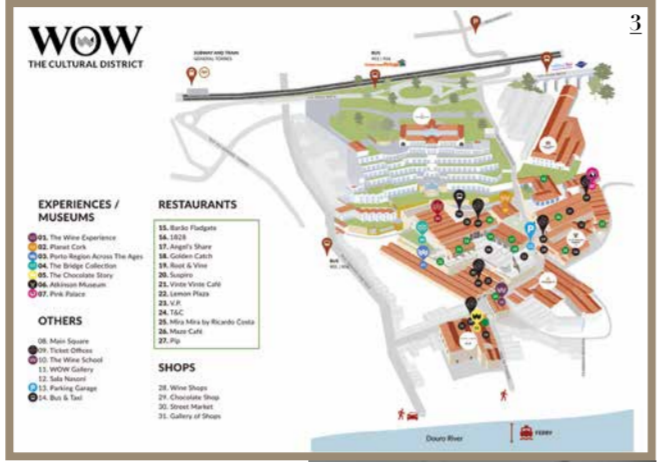
- 포르투갈의 국민 정서를 논할 때 흔히 소환되는 '3F'가 있다. 축구(Football), 종교(Faith), 성모마리아가 나타났다. 종교적 한시로 유명한 마을), 그리고 그들의 대표작인 대중가요인 파두(Fado)다.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에서 종교에 의존하고 축구에 미치고 음악에 취해 살게 하는, 우연과 정서의 수순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중 파두는 우리네 한복과 비슷한 사유다(saudade)를 기본 정서로 품은 음악으로, 오래전 리스본을 방문했을 때 한 식당에서 목 빠져 감상했던 기억이 있다. 포르투갈의 현 수도로 남부 우아한 리스본은 파두 발생지라도 일컬어지는데, 북부에는 제2의 도시 포르투는 어떻게 볼까? 축구 팬들에게는 FC 포르투(축구 클럽)의 도시일 수도 있지만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포도 와인의 도시로 여겨진다. 도시 이름 자체가 '항구(Porto)'인 포르투는 도루(Douro)강과 하구 언덕에 펼쳐져 있는데, 대항해시대 해양 무역의 거점였고 포도 와인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강을 따라 상류로 가면 포도 와인에 사용되는 포도를 재배하는 계단식 포도밭이 눈부시게 펼쳐진 도루 벨라기아이다.

- 인구 23만여 명, 인근 지역을 합쳐도 1백70만 명 정도에 불과한 이따한 항구도시 포르투. 요즘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행지 중 하나로도 꼽히는 이 도시는 길게 뻗은 도루강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역사 자구가 있는 포르투 시내, 그리고 남쪽에는 빌라 노바 드 가이아(Vila Nova de Gaia, 이하 가이아) 지역이 각각 자리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역사 자구는 품은 북쪽에는 포르투 대성당(Sé do Porto)을 비롯해 Bolsa(보사) 공전, 버스킹 명소로도 알려진 헤비라 광장, 푸른 타일로 내부를 단장한 아름다운 가이아 성벽, 한때 이 도시에 거주했던 작가 조앤 롤링의 세적 베스트셀러 《해리 포터》에 모티브를 제공했다는 인신문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루(Lello) 서점 등 볼거리가 많다. 변화는 오히려 문화적으로 축적했던 남쪽에서 일어났지만 말이다. 가이아 지역에 생겨난 복합 문화 단지 WOW 아이가를 시작한다.





### '체험 경제'의 다채로운 면면을 품다



###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 '공간형 콘텐츠'의 향연

- "포르투의 도시 유곽은 강 너머 빌라 노바드 가까이에서 잘 보인 다." 한 건축가나 나는 일반러 사자 인 터뷰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지만 건축계 구루의 말이 차는 권위를 살짝 빌려 WOW 프로젝트가 가져온 '발상의 전환' 효과를 애기하고자 한다. WOW는 특히 도루강 너머 포르투 중심부의 모습이 예쁜 일서의 이미지처럼 한눈에 담기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어떤 교통수단으로든 통 루이스 1세 다리를 일단 건너면 마주치는 언덕길을 따라 10분 정도만 내려가면 바로 WOW 단지가 자리하고 있으니 말이다. 솔직히 일반러 시 자가 가까이 일대의 변화된 풍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다(언젠가 직접 만날 기회가 있다면 물어보고 싶다). WOW 단지의 전반적인 건축적 풍경은 소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현대적이거나 '저분' 냄새가 상쾌하게 나지도 않게 크게 취향을 탈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문화 불모지나 다름없는 가까이 지역에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하는 걸 의심하는 목소리가 꽤 잦다는 점을 돌아보면, 오직 반대쪽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포르투 시가지의 눈부신 전망 을 간파한 이들이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물론 알맹이도 없이 그저 포르투 구도심의 아름다운 유곽만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는 없다. 그렇다. WOW 프로젝트는 당연히 상업적 복합 단지(complex)를 모델로 한 비즈니스이므로 하위웨어인(포파)과 소프트웨어(콘텐츠)의 조화로운 구비는 필수다. WOW 단지에는 '포트 와인'이라는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흐르고 막걸리, 불고기, 줄기거리 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자리를 잡았다(더 이트먼 호텔은 WOW 유턴 언덕에 따로 자리하지만 크게 보면 해 의 복합 단 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언덕 위 초록 가득한 전망을 품은 채 자리한 호텔 아래로 내려오면 탁 트인 전망을 품은 중앙 광 장이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싼 건물들이 흠뻑 젖어 있는데, 크기는 체험 공간(재미파크와 와인 스킨 등), 마시 파트로 나누고 와인, 초콜릿, 의류, 소품 등의 상품을 아우르는 매장도 있다. 21세기에는 단순한 상품과 서비스의 제인이 아닌 추억할 만한 감정을 안겨주는 '체험 경제(experience economy)'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주장을 살릴지 실천하고 있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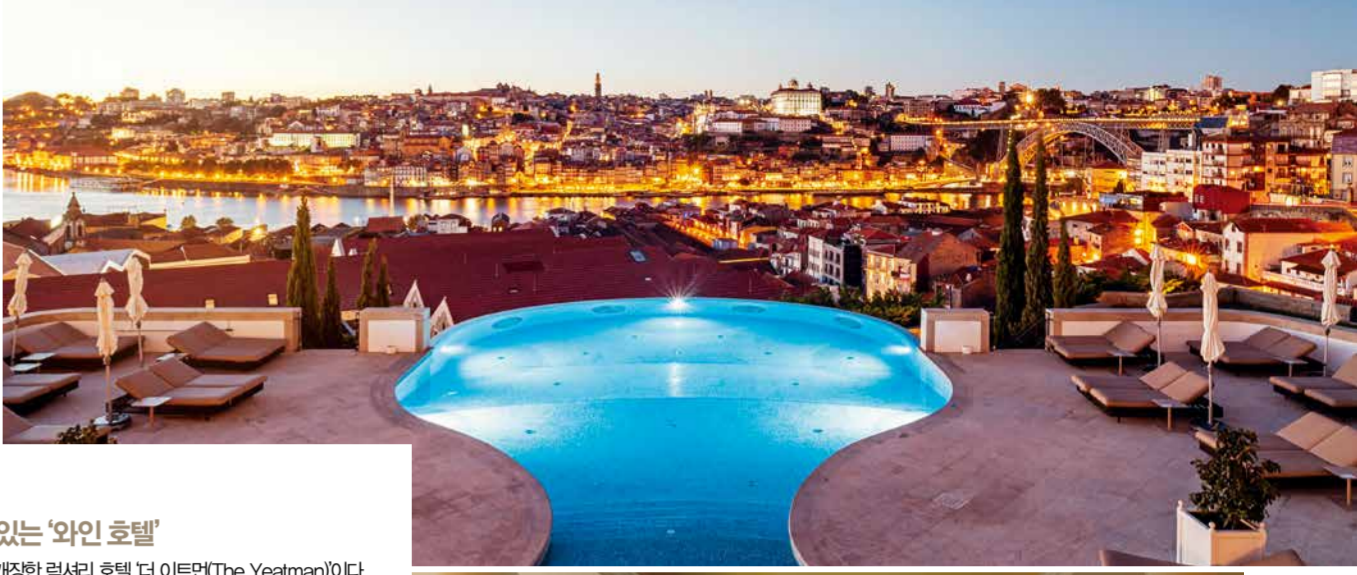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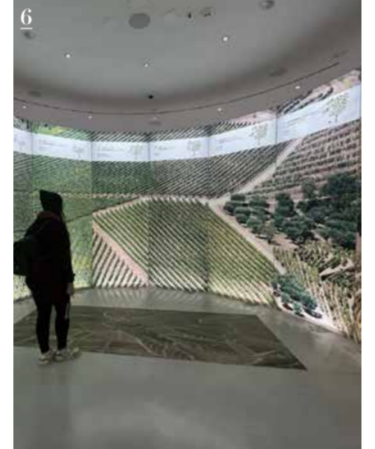
### #A Hub of Exhibition Spaces 역사부터 코르크, 술잔에 이르는 다양한 컬렉션과 흥미로운 기획전

- 갖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는 전시 공간은 단연 WOW의 백미다. 이 단지를 자칭 'cultural district'라 부르는 근거가 되어주기도 한다. 이미 세상에는 관공은 전사자, 미술관, 박물관이 차고 넘친다. 성공적인 차별화의 관건 은 맥락과 '수준'이다. 왜, 여기서, 이걸이라는 설득력을 지닌 전시와 체험, 그리고 타깃으로 삼은 대상에 맞춘 콘텐츠 의 세련된 기획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WOW의 초점은 뚜렷하다. 연인모든 가족 단위든 방문객이 어렵지 않게 이해하 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전시 공간 디자인과 콘텐츠 선장이 단연 눈에 띈다. 뮤지엄만 해도 와인, 코르크, 초콜릿, 글라스 컬렉션 등 다양한 범주가 있다. 와인 애호가라면 '와인 익스피리언스(The Wine Experience)'와 '플라너트 코르크(Planet Cork)'를 지나칠 수 없을 것 같다. 전자는 포트 와인은 물론 다양한 포르투갈 와인, 그리고 와인 전반에 관한 정보와 지식 을 알기 쉽게 접할 수 있고, 후자는 전세계 코르크 생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나라답게 와인의 동반자인 코르크의 이 모자모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에이드리언 브리지 대표가 장성스레 수집한 9천년 세월을 걸친 와인잔 컬렉션을 모 은 '브리지 컬렉션(The Bridge Collection)', 로제 와인을 둘러싼 세계를 역동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핑크 팔리스(Pink Palace)'도 있다. 지난해에는 리모델링을 마친 그래픽 옛날은 뮤지엄으로 변모해 현대미술 전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 개인적으로는 외지인이면 포르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Porto Region Across The Age(PRATA)'는 꼭 추천하고 싶다(그리고 되도록 제일 먼저 둘러가라). 선사시대부터 건국, 대항해시대, 프랑스나 폴 레옹이 아닌 근대의 침공 등 지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조만 할랑이 체류하던 사람이야...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 방으로' 이어진 영국과 포르투갈의 인연도 파악된다(그것도 와인을 연결 고리로). 백주전쟁(1337~1453)에서 프랑스에 패한 잉글랜드가 와인 생산에 차질이 생겨 포르투를 새 공급자로 낙점했는데, 바다로 수출을 싶어 나르다가 와인맛이 식 초 수준으로 망가져부터 '브랜디'를 섞어냈다. 그랬더니 발효가 멈추면서 달달함을 유지하면서 도수는 20도 넘게 올라 간 새로운 와인이 탄생했고, 이것이 바로 포트 와인이다(주요 포트 와인 사자가 대부분 영국인인 이유이기도 하다).



1 포르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가까이 지역에 자리한 복합 문화 단지 WOW. 수백 년 된 와인 저장고를 개조해 여러 상설을 품은 단지를 만들었다. World of Wine이라는 뜻의 약자로 전반적으로 와인을 광범위 키워드로 삼는데, 이곳에서 도루강 너머 탁 트인 전망을 보며 마음을 즐기노라면 줄기거리 그대로 '와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이다. 2 WOW 단지 내 건물 벽을 생동감 있게 장식한 미디어 아트. 3 WOW 단지와 호텔, 테라스 로지 등 주요 공간을 안내해주는 지도. 4 에이드리언 브리지 CEO가 장성스레 수집한 9천 년 세월을 걸친 와인잔 컬렉션을 선보이는 '브리지 컬렉션(The Bridge Collection)'의 전시장. 5 포르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체험형 전시 공간 'Porto Region Across The Age(PRATA)'. 6 포트 와인은 물론 놀랄만큼 다양한 풍미를 자랑하는 포르투갈 와인의 세계, 그리고 와인 전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와인 익스피리언스(The Wine Experience) 전시 공간. 자신의 취향에 맞는 포드 풍미를 간단히 테스트하는 색선 등 체험 요소가 눈에 띈다. 7 18세기 과학을 리모델링해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킨 옛날은 뮤지엄. 지난해 여름, 개관전으로 영국 테이트 미술관과 손잡고 옵이스트와 카네키 이스트를 선보인 현대미술 기획전 '더 다이내믹 아이: 광학의 카네키 이스트를 넘어서(The Dynamic Eye: Beyond Optical and Kinetic Art)'를 선보이기도 했다. 8 전 세계 코르크 생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나라답게 와인의 동반자인 코르크의 이모자모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간 '플라너트 코르크(Planet Cork)'. \* 1, 6, 7 Photo by 고성연 \* 2~5, 8 이미지 제공: WOW



### #The Yeatman 경이로운 포르투 '구도심'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와인 호텔'

- WOW라는 복합 문화 단지의 시작점은 2010년 개장한 럭셔리 호텔 '더 이트먼(The Yeatman)'이다. 호텔에 머무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즐기기 좋아하는 공간이 WOW가 된 셈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거듭 강조한 WOW 단지에서 포르투 중심부를 한눈에 담은 전망의 화점은, 사실 이 호텔에서 그 절정을 만끽할 수 있다. 담백하게 정돈된 싱그러운 정원을 긴 이 호텔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망의 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모든 객실은 도루강과 그 너머 포르투 중심부를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고 통 루이스 1세 다리가 보이는 테라스가 있다. 욕실에서도 빙을 향해 나 있는 옥조 결이 작은 청원을 열아놓으면 굳이 그 전망을 잊지 않아도 된다. 사실 원래의 청사진은 한자어 달랐다고 한다. 그런데 시 정부의 일부 토지 수용 결정으로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없었고, 주요 관할권 에 속한 숲이 긴 7,000㎡(약 2천백17평)의 땅을 매입할 수 있게 되면서 녹을 짙은 정원과 도루강 전망을 겸비한 지 금의 더 높은 지대를 정할 수 있게 됐다.

- 장소성의 특색을 살린 와인 호텔로 포지셔닝한 더 이트먼 호텔에는 와인 문화를 소재로 한 조형물과 사 진, 오브제, 회화 등이 곳곳에 있다. 호텔 야외 수영장(나비 풀) 디자인도 다채로 모안을 입혔다. 객실 문 앞에는 호 텔과 협업하는 지역 와인 생산업자의 이름을 붙여놓았다. 마침 필자가 방문했던 12월 초에는 실제로 이 와인업자들만 나고 그들의 베스트 와인을 푸드 페어링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연례 행사인 '크리스마스 와인 익스피리언스(Christmas Wine Experience)'가 열리기도 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여는 와인 디너를 비롯한 다양한 와인 행사를 개최한다. 객 실에 놓인 포드씨 생선이 함유된 비누부터 역시 '뷰 맛집인' 스페이드 와인 생분의 제품을 활용하는 생선만 바네타피를 제공하는 등 와인의 미학을 제대로 살린다. 그렇다고 럭셔리 의 정의가 와인만 한정되는 않는다. 포르투갈의 전통적 인 분위기를 풍기는 엔테리아의 정감 가는 객실은 물론 다다수 호텔 내부 공간이 널찍하고 편안하다. 겨울이면 열선시 같 린 욕실 바닥 덕분에 맨발을 더 선화하게 해주는 생선만 배려는 그릴로 디자인 싱킹의 소스이라 할만하다.

### #미식 풍경을 바꾸다 '육해공'과 디저트를 아우르는 먹거리 플랫폼

- 식재가 풍부한 포르투갈의 미식 풍경은 이미 꽤 이름나 있지만 포르투는 포트 와인의 원산지 항구도시 인만큼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식문화를 자랑한다. 일단 호텔 조식 뷔페에서 맞춤형으로 해주는 다양한 달걀 요리와 포 르투갈 디저트의 싱그러움 같은 에그 테르트르만 해도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WOW 단지는 마치 이곳 에 들어서면 모든 종류의 길종과 하프를 해소해주겠다고 이야기하던 다양한 요리와 주류를 선사한다. 포르투갈 전통 요리, 24시간 운영하는 바비큐 식당, 자체 공장에서 제조하는 빈테 빈테 초콜릿을 맛볼 수 있는 카페, 비건 전문 레스토랑, 파인 다이닝까지 범위가 아주 넓은 편이다(주 지사의 식음료 공간이 한 단지에 있는, 이 도시에서 보기 드문 플랫폼 이다). 예컨대 포르투갈 내천년 시지된 연도에서 이름을 따온 1828은 조스퍼 그릴로 구온 세계 최고의 고기 엘 카프리 초(El Capricho)로 유명인데, 영 빈티지 포트 와인파도 참덕공함인 여러 메뉴를 상점하다 보면 배가 터질 듯해한다. 또 감칠맛이 인상적인 새끼는 물론 다양한 포르투갈 전통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더 골든 캐치(The Golden Catch)는 도루강 전망을 바라보며 미식을 즐길 수 있는 야외 테라스도 갖췄다. 식전트 식후든 편안하면서도 우아하게 목을 축이고 싶다면 전 세계에서 공수한 최상급 와인을 보유한 낭만적인 와인 바인 에인젤스 셰어 와인 바 (Angels Share Wine Bar)가 있다.

- 사실 길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면 WOW 단지와 더 이트먼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 바를 다 섭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더 이트먼 호텔에 묵거나 WOW에 들른다면 미슐랭 2스타 셰프인 하카르두 코스타(Ricardo Costa)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인 '미라 미라(Mira Mira)'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말고도 당부하고 싶다. 옛날은 뮤지엄 꼭 대기에 있는 이 레스토랑은 세련미를 품은 공간이나 테이블어도 멋 있지만 포르투갈 전통 마식 문화를 반영하여 미국적인 요소의 절묘한 조화를 꾀하는 내공 덕분에, 어쩌면 생전 처음 접하는 맛의 신세계를 보여주는 요리를 만날 수도 있는 곳이다. 꼭 파인 다이닝이 아니라 도 포르투의 식문화가 사랑스러운 점은 진심이 담긴 사형의 미학에 있다고 덧붙이고 싶다. 어쩌서 특정 종류의 포트 와인이나 고기 요리와도 공명하는 맛을 사들인 한 장면처럼 상성 열 로 돌게 설명하는 미소 띤 얼굴에는 그저 미소로 화답하게 된다. "그들은 진정한 것이요, 가식 이 아니라 진짜짜기 스윗한이요." 바로 이런 진정한 덕택에 이 도시에 레 이프스타임 사업이 인산횡출 이라는 에이드리언 브리지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글: 고성연, 포르투 현지 취재



1 도루강 남쪽 기슭에 자리한 가까이 지역에 2010년 개장한 럭셔리 호텔 더 이트먼(The Yeatman). 레일 & 샤토(Relais & Châteaux, 역사와 전통을 지닌 최고의 호텔과 명성 높은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연합) 호텔이다. 호텔이 언덕 위에 자리해 건축을 위한 디자인 자체가 포트 와인의 원산지인 도루 계곡에 있는 개관시 포도밭을 명상시키기도 한다. WOW와 더 이트먼 등을 거느린 플랫폼이트는 도루 계곡에도 빈티지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2 더 이트먼은 와인 호텔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만큼, 디자인 모양의 인피니티 내부 더 홀에서 강 너머 포르투 구도심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다. 3 '비네타리(와인 스킨)'를 비롯해 최상의 시식을 갖춘 더 이트먼 호텔 스파 내부의 로마인 욕실(Roman Bath). 4 WOW는 다양한 마식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식문화 플랫폼이기도 하다. 조스퍼 그릴로 구온 세계 최고의 고기 엘 카프리초(El Capricho)로 유명한 1828. 5 미슐랭 2스타 셰프인 하카르두 코스타(Ricardo Costa)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인 미라 미라(Mira Mira) 내부. 6 포르투갈 전통 해산물을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인 '더 골든 캐치(The Golden Catch)'. 7 우수한 품질의 카이오를 사용해 순수하고 깔끔한 맛으로 잘 알려진 빈테 빈테(Vinte Vinte), 체험형 공간인 초콜릿 스토리가 WOW 단지 내에 있고, 자체 초콜릿 공장에서 생산한 초콜릿으로 만든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신화 카페도 있다. 8 더 이트먼 호텔도 풍부하고 멋진 조식, 품격 있고 다채로운 파인 다이닝, 방대한 와인 리스트를 갖추고 있다. 와인 대가는 하카르두 코스타 셰프가 권장한다. 9 개관한 와인 풍요로 만든 좌석과 넓은 야외 테라스가 있는 전통 포르투갈 T&C. 전통 포르투갈 음식을 맛있게 재래하다. \* 1, 9 Photo by 고성연 \* 2~3, 8 이미지 제공: The Yeatman \* 4~7 이미지 제공: WOW





# Eternal Love

지금으로부터 1백 년 전, 대표적인 하이 주얼리 매종 까르띠에에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주얼리가 탄생했다. 한 세기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트리니티 링이 그 주인공이다. 1924년 3개의 밴드를 연결한 혁신적 디자인으로 선보여 지금까지 클래식과 창조성의 상징이 되고 있는 까르띠에 트리니티, 그 1백 년의 시간.

##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주얼리의 탄생

트리니티의 탄생은 럭셔리 주얼리 매종 까르띠에에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된다. 루이 까르띠에는 프레서스 스톤 작업을 본질적으로 중시했던 당시에 규범을 깨며 가장 모던하고 클래식하면서도 특별함을 담은 디자인을 고안해냈다. 플래티넘, 옐로 골드, 핑크 골드까지, 서로 다른 소재의 3개 링이 하나로 얽혀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의 링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는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전통적인 주얼리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게 예술적으로 풀어낸 주얼리였다. 어느 주얼리와 다른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 가지 모던한 링을 하나로 엮고자 하는 아주 사소한 사고의 전환으로 특별함을 더했다. 이 방식이 단순히 보일지라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시도를 루이 까르띠에가 실현했다. 모든 것이 대답했다. 컬러 조합부터 링의 유연함, 디자인의 단순함, 그리고 상징적인 강렬함까지. 단연 시대를 앞선 디자인임에 틀림없었다. 게다가 세 가지 링을 하나로 엮으면서 아름다운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 매우 섬세하고 디테일한 과정을 거쳤다. 완벽한 사이즈와 형태에 대한 공성이 필요했으며, 간결한 라인을 지키면서도 적절한 비율과 정밀한 형태까지,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았기에 트리니티 링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 또 세 가지 링을 동시에 착용하는 것에 대해 한 치의 불편함



1

이 없도록 인체 공학적 측면까지 고려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트리니티 링은 바깥쪽은 둥글고 안쪽은 부드럽게 움직이는 링들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겹치고 합쳐지며 극도의 유연함을 보여준다. 이렇듯 세 가지 링이 자연스럽게 유기적이면서도 편안하게 연결될 수 있었기에 트리니티는 자

유로움, 보편성, 연결성 등에 대한 상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강렬한 상징성 덕분에 트리니티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가족의 유산, 사랑의 정표, 우정의 상징, 사랑 고백 등 무한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 상징성과 클래식한 디자인은 세대를 거치며 기교로 물려주기에 도 손색이 없다. 또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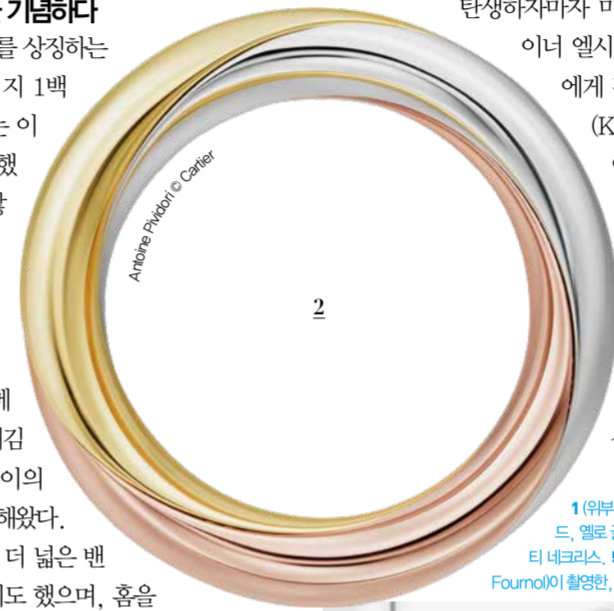
던한 디자인으로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이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트리니티는 애착과 교감이 느껴지는 링이라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링을 이루는 숫자 3에 뜻깊은 까르띠에의 히스토리카까지 담았다. 까르띠에가의 형제가 루이, 피에르, 자크까지 삼 형제라는 사실부터 까르띠에의 상징적인 부티크가 파리, 런던, 뉴욕 등 세 도시에 위치한다는 사실까지, 까르띠에 매종의 탄생에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코드가 분명하다. 이는 트리니티가 까르띠에의 정체성이자 상징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유다.

## 트리니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상징하는 특별한 트리니티가 탄생한 지 1백 년이 되는 올해, 까르띠에는 이 특별한 해를 기념하기로 했다. 3개의 링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와 감정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트리니티를 기념하는 것은 까르띠에를 기념하는 것과도 같다. 1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매종의 상징적 피스로 자리매김한 만큼 트리니티는 많은 이의 사랑 속에서 진화하고 발전해왔다. 예를 들어 가는디란 링이나 더 넓은 밴드 등 볼륨감이 변주를 주기도 했으며, 흠을 파거나 패시 처리한 것, 혹은 가드룬 디테일을 가미한 피스 등 시간이 흐르면서 고귀한 것부터 예상치 못한 것에 이르기까지 창의적 소재를 입고 대담함을 뽐냈다. 올해 역시 트리니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진화와 혁신을 거듭한 특별한 피스들을 출시한다. 첫 번째 피스는 이전의 원형에서 조금 변화를 준 뉴 트리니티 링이다.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핑크 골드 소재와 움직임, 간결한 라인인 그대로지만 밴드의 형태가 조금 달라졌다. 매종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는 어떻게 하면 트리니티의 상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고민을 했고, 기하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매우 창의적이고 대담한 스타일 변신을 꾀한 결과 타임리스한 트리니티에 독특한 스타일을 추가했다. 바로 트리니티 링의 쿠션 버전이

다. 4개의 모서리가 굴곡진 스퀘어 형태의 링 3개가 기존 트리니티와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편안하게 손에 안착하며 마치 건축물을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한다. 원형만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편견을 깨면서 대담함과 혁신성을 표현하고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클래식함과 모던함, 그리고 트리니티가 지닌 상징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스마트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덕분에 트리니티의 1백여 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새로운 트리니티 링이 탄생할 수 있었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피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컬트 피스인 트리니티 브레이슬릿이 맥시멀한 매력을 강조하며 다시 등장했다. 1924년 이 브레이슬릿은 탄생하자마자 미국의 유명 인테리어나 디자



2

이너 엘시 드 울프(Elsie de Wolfe)에게 판매되었고, 배우 켈들 리(Kendall Lee)가 자신의 팔에 트리니티 브레이슬릿 여러 개를 겹쳐 착용한 사진이 유명 매거진에 실리기도 했다. 브레이슬릿 역시 3개의 장엄한 밴드에 링의 움직임과 유연함을 그대로 담아 트리니티의 상징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1 (우부터)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옐로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트리니티 네크리스와 트리니티 링,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옐로 골드 소재의 트리니티 링. 2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출시한 트리니티 컬렉션 신제품. 3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트리니티 링. 4 신제품 트리니티 네크리스. 5 트리니티 링을 착용한 그레이스 켈리. 1959년 자메이카에서 하웨이 코넛트(Howell Connert)가 촬영했다. 6 1960년대 초 루크 푸른들(Luc Fournel)이 촬영한, 2개의 트리니티 링을 레이어링하고 있는 장 르토.



5



6

## TRINITY 100 years of History

**1924년**

루이 까르띠에가 1924년 디자인한, 3개의 밴드로 이뤄진 링은 핑크 골드, 옐로 골드, 플래티넘 밴드가 얽혀 있다. 같은 해에 서로 얽힌 3개의 밴드로 이뤄진 브레이슬릿도 탄생했다.

**1930년**

이 링은 예술계의 많은 유명 인사를 사로잡았다. 193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 시인 장 콕토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2개를 동시에 끼기도 했다. 1931년 사진에서 볼 수 있듯 미국 배우 게리 쿠퍼 역시 이 트랜드에 참여했다.

(왼쪽) 보리스 린넨코프(Boris Lippitzki)가 밀리-라-포레(Milly-la-Forêt)에서 촬영한 장 르토, 1951. (오른쪽) 유진 로버트 리치(Eugene Robert Ritchie)가 촬영한 게리 쿠퍼, 1931.

**1967년**

브레이슬릿의 밴드 수가 7개까지 늘어났다.

**1981년**

핑크 골드 밴드에 'Les Must de Cartier' 인그레이빙을 더한 세 가지 골드의 3개 밴드 링을 론칭했다. 사진은 레 머스트 드 까르띠에 트리니티 링.

**1997년**

세 가지 골드의 3개 밴드로 이뤄진 모든 까르띠에 주얼리에 '트리니티'라는 이름을 붙였다.

**2010년**

매종에서 트리니티 컬렉션을 계속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창의성을 펼쳐냈다. 사진은 트리니티 브레이슬릿.

**2022년**

까르띠에와 사카이 창립자 아베 치토세(Chitose Abe)가 협업해 새로운 6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탄생시켰다. 사진은 사카이 아베 치토세의 트리니티 투 핑거 링.

**1925년**

탄생한 해에 이어 3개의 밴드 링을 다른 컬러와 소재로 선보였다. 1925년 미국 (보그)에서 세 가지 골드의 3개 밴드로 구성된 이 링과 브레이슬릿과 관련해 '트리니티'라는 이름을 언급했다. (보그) US, 1925년 1월호 50~51페이지.

**1950~60년**

당대 많은 셀브라티와 마찬가지로 알랭 들롱, 로미 슈나이더, 그레이스 켈리 모두 이 3개의 밴드로 이뤄진 링을 착용했다. 그만큼 트리니티는 당시 유명 인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왼쪽) 영화 (보카치오 70)(Boccaccio 70)에 출연한 로미 슈나이더, 1962. (오른쪽) 루치노(Luchino) 감독의 영화 (일 가토파르도)(Gattopardo) 촬영장에서 촬영한 알랭 들롱의 모습.

**1973년**

매종에서 레 머스트 드 까르띠에(Les Must de Cartier)를 론칭했는데, 가격은 그대로지만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액세서리로 선보였다. 라이터, 펜, 장식 오브제를 3개의 링으로 장식했다. 사진은 레 머스트 드 까르띠에 멀티 프로덕트 광고.

**1990년**

매종에서 당시의 상징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독특한 비율의 세 가지 골드로 이루어진 3개 밴드 링을 론칭했다. 사진은 트리니티 링.

**2004년**

트리니티 컬렉션에서 브레이슬릿 XL 버전과 더불어 핑크-옐로-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버전을 소개했다.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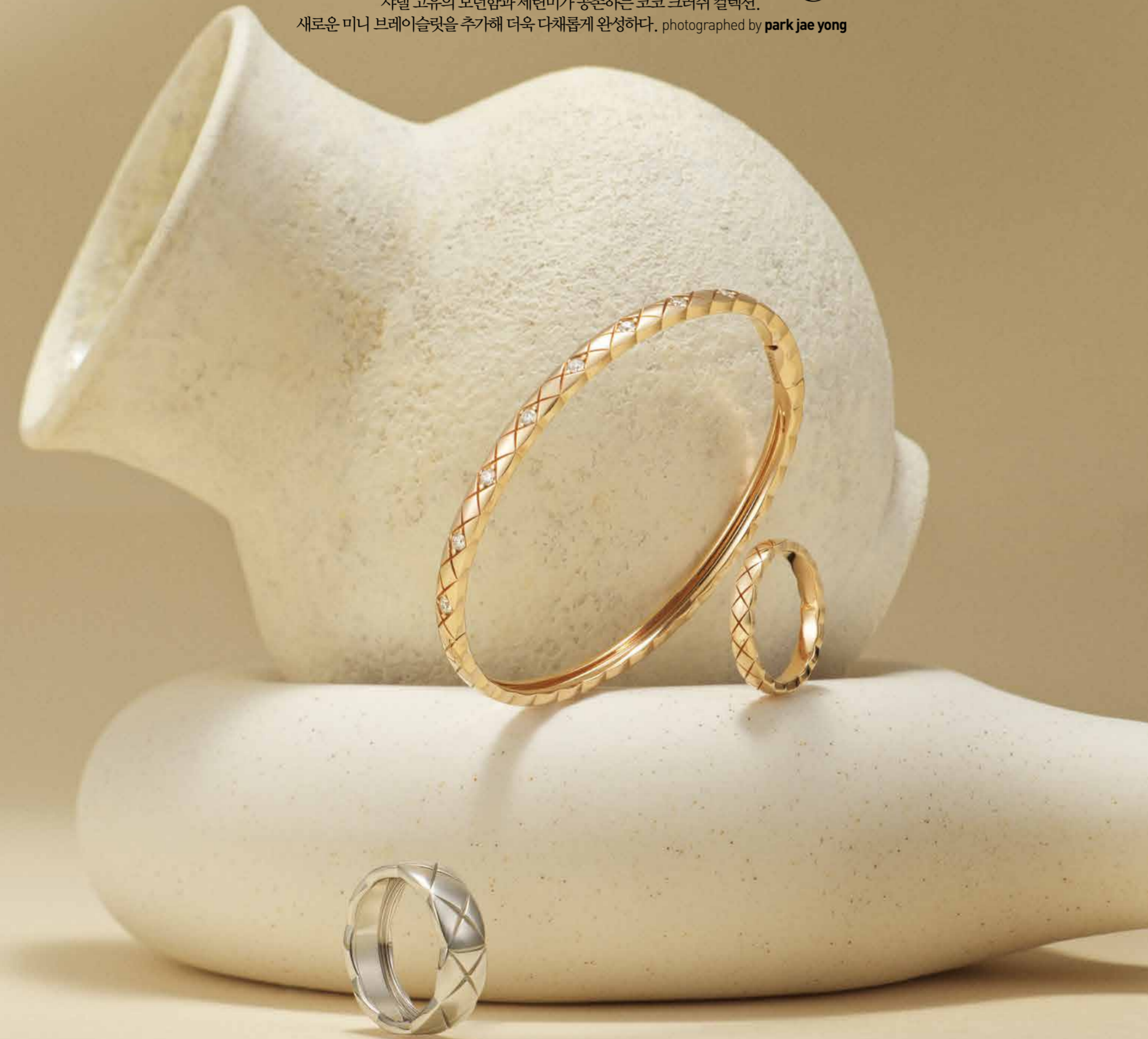
화이트 골드, 블랙 세라믹 모델과 함께 컬렉션이 더욱 풍성해졌다. 사진은 트리니티 링.

**2024년**

트리니티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해다. 두 가지 대담한 새 디자인을 론칭하고, 상징적인 XL 버전의 링과 브레이슬릿을 다시 선보인다. 사진은 트리니티 링.

# brilliant Modernity

샤넬 고유의 모던함과 세련미가 공존하는 코코 크러쉬 컬렉션.  
새로운 미니 브레이슬릿을 추가해 더욱 다채롭게 완성하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유티터 차폐패라) 총 0.327카트의 9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멋을  
배가하는 18K 베이지 골드 소재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18K 베이지 골드 소재 코코 크러쉬  
미니 링, 심플한 느낌을 부여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스톤 링 모두 **사설 확인 주얼리.**

이시노베트 신상권

(유티터 차폐패라) 모던한 무드를 선사하는 총  
0.327카트의 9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아이코닉한 핏팅 모티브의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모두 **사설 확인 주얼리.**



(위부터 시계방향) 링팅 모터브의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코코 크래쉬 미니 링, 총 1.28카트의 3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해 화려한 광채를 발산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코코 크래쉬 미니 브레이슬릿,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코코 크래쉬 스톤 링 모두 **사설 화인 주얼리**.



(왼쪽부터 시계방향) 18K 옐로 골드 소재 코코 크래쉬 브레이슬릿, 총 0.32카트의 9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옐로 골드 소재 코코 크래쉬 미니 브레이슬릿, 총 0.35카트의 18개 다이아몬드를 생생하게 세팅한 18K 옐로 골드 소재 코코 크래쉬 다이아몬드 미니 링 모두 **사설 화인 주얼리**.



(위부터 시계대리) 여성스러운 느낌을  
부여하는 18K 베이지 골드 소재 코코 크래쉬  
브레이슬릿, 0번에 세롭게 출시한 알은  
두께의 18K 베이지 골드 소재 코코 크래쉬  
미니 브레이슬릿 모두 **사설 확인 주얼리**.



(위부터 시계대리) 클래식한 맛을 부여하는  
18K 옐로 골드 소재 코코 크래쉬 미니  
브레이슬릿, 18K 옐로 골드 소재 코코 크래쉬  
스몰 링, 아디에나 레아링하기 좋은  
18K 옐로 골드 소재 코코 크래쉬 미니 링  
모두 **사설 확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http://www.chanel.com) 에디션 **윤자경**



Love

(왼쪽부터 차례대로) 총 1.22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러티넘 소재의 티파니 세팅 인가이저먼트 링 가격 미정 **티파니**,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으며, 손가락을 부드럽게 감싸는 라인이 세련된 느낌을 선사하는 스톤세 가격 미정 **티파니**, 센터 스톤으로 약 17캐럿의 임페리얼컷스 컷 다이아몬드 17캐럿, 그 양옆으로 각 0.23캐럿의 임페리얼컷스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비마이러브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쇼페**.



(우측부터 차례대로) 총 0.7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하고, 플러티넘 소재의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엘핀 인가이저먼트 링 1천5백33만원 **프라이드**, 메종인의 특허 기술을 적용한 K88 컷의 0.51캐럿 다이아몬드를 중앙에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브라이덜 링 가격 미정 **클로버프**, 다양한 실루엣을 자랑하는 총 5.08캐럿의 패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프로미스 링 가격 미정 **그라프**, 화이트 골드 밴드에 하트 세이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사랑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프리프즈 링 1천1백56만원 **쇼페**.

가슴의 힐 디자인으로 순수하면서도 드라마틱한 느낌을 자아내는 드레스 가격 미정 **바키 by 소유브라리얼**, 소가죽 소재의 실버 컬러 웨딩 슈즈 가격 미정 **할프 로빈 갈락션**, (우투터) 밤하늘을 수놓은 별과 같은 빛을 선사하는 칼렉션의 아이클로드로 플러티넘 소재에 마크스 컷 다이아몬드 총 1.62캐럿을 세팅한 티파니 빅토리아 아이클, 플러티넘 소재에 마크스 컷 다이아몬드 0.83캐럿과 패어 세이프 다이아몬드 0.74캐럿,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0.55캐럿을 더해 드림 스타일로 완성한 티파니 빅토리아 미스트 클러스터 드림 펜던트 각각 4천만원대 모두 **티파니**.

Story

사랑하는 이와 의 고귀한 서약, 그 아름다운 순간.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풍성한 스퀘어 디테일이 돋보이는 도비 스크 소재의 슬림 드레스 가격 미정 **프로노비아스 by 핑크글로브라이드**. (위부터) 아이코닉한 바티콜라이 디자인에 총 1.437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완성해 우아함을 부여한 **아이링** 1천7백46만원, 총 17.14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교차 시팅해 화려함을 부각한 클래식 바티콜라이 컬렉션 알티 세이프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총 1.157캐럿의 다이아몬드로 화려한 나비를 형상화한 파베 바티콜라이 컬렉션 마작스 다이아몬드 링 1천8백99만원 모두 **그라프**. 사랑의 약속을 상징하는 플라워 디자인의 18K 화이트 골드 보드에 75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0.627캐럿을 세팅해 화려하게 장식한 로즈 인크리먼트 링 1천4백90만원 **파이에**.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시팅해 화려한 나비의 모습을 표현한 바티콜라이 슬루엣 컬렉션 링 9백7만원, 총 2.137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감성을 부여한 이타너티 링 1천7백46만원 모두 **그라프**.



(왼쪽부터 차례대로) 메종만의 아이코닉한 인그레디언트 7캡이 돋보이는 표면이 특징으로, 총 0.5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 마드리 클라시카 브리오 슬릿 1천8백만원대 **부샬라디**. 총 1백1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총총하게 시팅해 눈부신 광채를 자랑하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상스 인피니텔 2천1백40만원 **프렌드**. 우아한 리본 포인트가 여성스러운 무드를 부여하는 동시에 심플한 실루엣을 이루는 총 0.6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 루반 네크리스 1천4백만원대 **사벨 화인 주얼리**. 우아한 무드를 선사하는 공작 깃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0.51캐럿의 1개 다이아몬드와 총 1.957캐럿의 3백14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럼 드 핑리지 링 6천만원대 **부세론**.



(위부터 차례대로) 화려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며, 총 4.427캐럿의 84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조세핀 아그레드 임페리얼 아이링 5천만원대 **쇼에**. 총 10.7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리본 디자인을 더해 사랑스러운 무드의 달디의 보우 컬렉션 알티 세이프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그라프**. 단아한 것을 전하는 총 1.237캐럿의 17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플러이드 링 2천만원대 **빈델라프 이젤**. 총 0.337캐럿의 23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심플한 분위기를 전해 매달 착용하기 예 제라진 리미에 링 4백만원대 **콜로프**.





(우로부터 차례대로) 트윈스트 밴드 향파가 특징인 스파이럴 컬렉션 링크 골드 웨딩 밴드 3백50만원, 다이아몬드를 상하하게 세팅한 스파이럴 컬렉션 파베 다이아몬드 화이트 골드 웨딩 밴드 8백20만원 모두 **그라프**, 총 0.06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로고 문구로 포인트를 준 로즈 골드 소재의 투주르 시그니처 에드워드 웨딩 밴드 2백만원대, 플래티넘 소재의 투주르 시그니처 에드워드 웨딩 밴드 4백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총 0.02캐럿의 5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라인 에반딩스 웨딩 밴드, 두께 3mm의 플래티넘 소재 라인 에반딩스 웨딩 밴드 각 3백만원대 모두 **소세**.



(왼쪽부터 차례대로) 매종의 시그니처 모티브인 자물쇠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총 1.08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링, 총 0.15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링의 반에만 세팅해 시크한 맛을 부여한 티파니 링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옐로우핑크화이트 골드 소재 조합이 돋보이는 클래식 트라 티 링, 화이트 골드와 블랙 세라믹의 하모니가 도화적인 느낌을 선사하는 클래식 트라 티 링 각 2백만원대 모두 **가르디에**.



은은한 베이지 컬러가 매력적인 100% 모조재킷 가격 미정 **파라카모**, 올 및 모에이 혼방 소재의 더블브라스트 재킷 3백30만원 **코아에**, (여자 유행타) 옐로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여성스러운 매력을 보여주는 자스트 앵글루 링 9백만원대 **가르디에**, 아이 코너의 회전 모티브를 다한 웨딩 밴드로 18K 핑크 골드에 약 0.03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7개를 세팅하고 총 1.06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81개를 전체에 세팅해 화려함을 부각한 포제션 링 1천5백20만원 **파이어**, 18K 로즈 골드 소재에 총 0.2캐럿의 52개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투게더 팬텀트 가격 미정 **포엠티토**, 이틀리예 밖에 걸린 패브릭 생물이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화이트 골드 소재에 0.6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부여한 핑크 다이얼 컬렉션의 웨딩 밴드 가격 미정 **다들 파인주얼리**, 특유의 모티브를 새긴 4개의 밴드로 이뤄진 아이 코너-한 컬렉션으로 총 0.51캐럿의 23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트로 클래식 다이아몬드 라지 링 1천만원대 **부세온**, 남자 오른쪽 유행타 시계 방향(으로) 4개의 다른 소재로 이뤄진 밴드가 하나로 합쳐져 독특한 감성을 부여하는 코트로 클래식 다이아몬드 스물 링 9백만원대 **부세온**, 다들 하우스의 패브릭을 상징하는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핑크 링 가격 미정 **다들 파인주얼리**, 꽃을 모티브로 한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링크 골드 소재의 자스트 앵글루 링 9백만원대 **가르디에**, 18K 핑크 골드 중앙에 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그 주위에 약 0.38캐럿의 49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제션 링 9백50만원 **파이어**, 18K 로즈 골드 소재로 이뤄진 심플한 스톱워치의 백골로 2개의 라운드 골드 링이 평평한 기로 줄로 연결되어 순수하고 모던한 일러스트의 절제된 감성을 보여주는 투게더 밴드 가격 미정 **포엠티토**.

상세한 디테일이 여성스러움을 부각하는 테크니컬 코튼 레이스 소재의 파이트 재킷 가격 미정 **디올**, (유티터 시계 방향으로) 아틀라늄과 순수함, 중년층의 상징인 연꽃을 모티브로 탄생한 로타스 컬렉션으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이어링 5천500원대 **빈클리프 아펠**,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벨 마리 모양 케이스에 벨 비늘에서 영감을 온 듯 디테일하고 상세한 문양의 브레이슬릿으로 아이코닉한 감성을 선사하는 세르펜티 세두토리 워치 7백10만원 **블가티**, 새틴 패턴에서 영감을 온 각자두닉 장식이 돋보이는 워치로 스틸 케이스에 베젤을 총 0.32캐럿의 40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라마니 디 마이 디올 스틸 다이아몬드 세트 가격 미정 **디올 타임피스**, 정교한 골드 세공과 독특한 오벌 다이얼이 매력적인 앙스트랄리 레이다 워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더하고 약 1.4캐럿의 24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베젤에 세팅했다. 9천4백만원 **파이에**, 뉴욕의 볼드한 에치와 파워풀한 건축물에서 영감을 온 컬렉션 워치로 18K 로즈 골드 소재에 화이트 MOP 다이얼과 총 1캐럿의 2백91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완성했다. 4천만원대 **타파니**, 케이스 지름 15mm의 작은 사이즈에 화이트 골드와 44개의 다이아몬드로 이뤄져 브레이슬릿 같은 여성스러운 감성을 전달하는 포부르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아이코닉한 핑크 골드 비즈로 빛을 발하는 컬렉션 워치로 마더오브빌 다이얼이 우아함을 완성한다. 4천2백30만원대 **빈클리프 아펠**, 총 10.55캐럿의 에펠드 컷 다이아몬드가 임팩트를 주는 다이아몬드 프로미스 링 가격 미정 **그라프**, 플래티넘 소재 밴드 중앙에는 다이아몬드를, 인쪽에는 루비 장식을 더한 프레드 로라브 워딩 밴드 2백만원 **프레드**.

(유티터 차례대로) 38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2백23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매력적인 에펠드 로즈 골드 케이스를 완성해 화려한 맛이 돋보인다. 오트메릭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레이디 아펠 데이엔 나잇오와즈 드 파라디 가격 미정 **빈클리프 아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36mm 케이스를 더하고, 다이얼에는 마더오브빌 비늘에 손으로 세공한 에펠 꽃 장식 다이얼이 돋보이는 벨레 블로섬 MB 가격 미정 **로저드부**.



(유티터 차례대로) 총 12.36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알리오 가격 미정 **부셀로티**, 마더오브빌로 장식한 오벌 세이프 다이얼에 1백23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베젤과 러그를 38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매종인의 장인 정신과 우아한 스타일을 드러내는 다이얼트 컬렉션 1억4천2백21만원 **소피드**,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18K 5N 핑크 골드 소재로 완성하고, 베젤에 90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칼리버 1088/1로 구동하고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오버시즈 셀프 와인딩 8천4백50만원 **비세르 콘스탄틴**, 바이올렛옐로 골드로 완성한 브레이슬릿과 옐로 골드 케이스가 우아한 조화를 이루는 클래식 [안도미테드 가격 미정 **카를라에**.



(우부터 차례대로) 메종의 아이코닉한 쿼터 라운드 형태의 42mm 스틸 케이스가 돋보이며 6시 방향에 날짜창이 위치한다. 자체 제작 1110P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피아제 홀로 2천500만원, 36mm 스틸 케이스와 기묘세 장식의 블루 다이얼의 조합이 깨끗한 느낌을 부여하며, 약 0.07카트의 3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인테스를 장식한 피아제 홀로 데이트 2천1백20만원 모두 **피아제**. 단정하면서도 선시하는 스틸 케이스로 대담으로 착용하기 재치하며, 오토매틱 와인딩 메카니즘 무브먼트를 장착한 라지 사이즈의 탱크 프랑세스 8백만원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틸 케이스와 검 모양 블루 스틸 핸즈가 눈길을 사로잡는 스몰 사이즈의 모델 탱크 프랑세스 1천1백만원대 모두 **카르띠에**.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0.32카트의 9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르쿠라쉬 브레이슬릿 1천3백만원대, 아디페나 라이아블리티 좋은 사이즈의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코르쿠라쉬 브레이슬릿 7백만원대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우부터 차례대로) 42mm 풀리드 스틸 케이스에 화이트 선 브러시드 다이얼로 완성했으며, 3시 방향에 날짜, 9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 인디케이터가 위치한다. P.900 칼라바를 탑재하고 무려 33칸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루이노르 두에 프라다 리-나옴론, 38mm 풀리드 스틸 케이스와 핑크 나옴론 스트랩의 조합이 사랑스러운 느낌을 지어주며, P.900 칼라바를 장착하고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루이노르 두에 7백만원대 모두 **피아제**. 고급과 나눔을 상징하는 모티브가 특징인 폭 6mm의 화이트 골드 소재 라얌 에버당스 브레이슬릿, 총 0.03카트의 5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소재의 라얌 에버당스 브레이슬릿 각 1천만원대 모두 **쇼메**.

(남자) 바타블라이 지수 포맷트의 블랙 재킷 4백50만원, 셔츠와 턱시도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발렌티노**. 사랑하는 이들의 유대감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컬렉션 중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LOVE 브레이슬릿 7백만원대, 18K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7를 세팅한 LOVE 링 9백만원대 모두 **카르띠에**. 긴고한 블랙 세미무에 18K 옐로 골드로 포맷트를 더해 시선을 사로잡는 J12 워치 칼라바 12.1 38MM 2천3백70만원대 **샤넬** **워치**. (여자) 이리디시트 트루드 소재의 드레스와 재킷 모두 가격 미정 **샤넬**. 18K 화이트 골드 소재 밴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화려함을 부여한 LOVE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18K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7를 세팅한 LOVE 링 9백만원대 모두 **카르띠에**. 블랙 세미무 소재에 약 1.21카트의 4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틸 고장 베젤과 약 0.06카트의 12개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인디케이터가 돋보이는 J12 워치 33MM 2천80만원 **샤넬** **워치**.





(위부터 시계대리) 브러시 처리한 아이코닉한 골드테크™의 사다리꼴 핀 버클과 딥 블루 컬러 악자가족 스트랩의 조화가 애증인의 특별한 미적 감각을 선사한다. 44mm 케이스를 장착하고 P.9200 칼라버로 구동하는 루마노르 크로노 골드테크™ 블루 노트 3천원짜리 **파타이**, 44.2mm 18K 레드 골드 케이스를 다뤘으며, 다이얼에는 날짜, 요일, 월, 문패(즈, 파워 리저브 디스플레이)가 위치한다. 다들 문패(즈 디스플레이로 실제 달의 주기적의 오차가 9백77.5년 동안 단 하루에 지나지 않는 7월력을 지원하는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5천원짜리 30만원 **IWC**, 40mm 케이스에 비강쪽으로 경사진 시웨이 브러시 처리한 블랙 칼라 다이얼이 매력적이다. 오토매틱 칼라버 759를 장착한 마스터 칸트를 크로노그라프 캘린더 4천7백원짜리 **에거 로콜트르**, 칼라버 2162 R31을 탑재했으며, 오픈워크 다이얼로 투르비옹과 레트로그래이드 데이트 디스플레이를 감상할 수 있는 41mm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의 트래디셔널 투르비옹 레트로그래이드 데이트 오픈 페이스 2천4천원짜리 **바세론 콘스탄틴**.



(왼쪽부터 시계대리) 애증 최초의 울트라-신 스텝 와인딩 투르비옹 무브먼트를 장착해 기술적 기사가 돋보이는 워치, 18K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가 고급스러움을 배가하며, 자체 제작 1270P 울트라-신 기계식 셀프 와인딩 투르비옹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파이제 영퍼포드 투르비옹 2천4천원짜리 **파이제**, 42mm 핑크 골드 케이스와 플-형 베젤, 3개의 리그가 특징이며, 마이크로 로터를 위한 오토매틱 스텝레온 무브먼트를 장착한 엑스칼라버 MB 가격 미정 **로저드버**.



돈오트 디올 오블리크 자드 장스의 더블 슬 칼라 로보이는 언벨런스 스타일의 울 트릴 재킷, 화이트 코튼 포플린 셔츠 모두 가격 미정 **다올 맨**. (위부터 시계대리) 블랙스틱과 심플한 디자인이 남성적인 매력을 배가하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비제르인 브레이슬릿 9천250원 **블가리**, 8천원은 밀 모티브를 더한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얼드로 포인트를 준 벨 에포크 힐링 가격 미정 **다이나니**, 지름 42mm의 핑크 골드 케이스에 블루 클루드 파리 다이얼이 돋보이는 오토 로마 크로노그라프 워치 1천2천900원 **블가리**.

모델 Alba Chafer (Jennifer Model)  
ASILUS Agency)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서아름  
어시스턴트 신정림  
에디터 성정민, 윤자경

소유브라이더 02-541-7077  
발프 로빈 칼라버 02-3467-6560  
타파니 02-6250-8620  
콜로프 02-3442-4706  
소파드 02-6905-3330  
타사키 02-3461-5558  
소메 02-3442-3369  
다이나니 02-515-1924  
핑크골드브라이드 02-542-2508  
그라프 02-2256-6810  
부셀라테 02-6905-3490  
파이제 1668-1874  
파라가르 02-3430-7854  
로야베 032-242-2136  
포탈라토 02-3143-9486  
카르피에 1877-4326  
부셀론 031-5170-1177  
발렌티노 02-3015-4855  
사벨, 사벨 워치 & 화인 주얼리  
080-806-9828, www.chanel.com  
다올, 다올 맨, 다올 타일파스,  
다올 피안주얼리 02-3280-0104  
빈들리프 이젤 1877-4128  
프래드 02-514-3721  
블가리 02-6106-2120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로저드버 02-3479-1403  
바세론 콘스탄틴 1877-4306  
파타이 1670-1936  
IWC 1877-4315  
에거 로콜트르 1877-4201

유니크한 곡선 형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두꺼운 스트랩이 매력적인 트리를 앵클 샌들 1백9만원 **세라지오 로시**, 문의 0507-1373-5977, 라피아 품플 다테알이 걸을 때 마다 경쾌한 무드를 베가하는 랩 스킨 소재의 아담 레아스업 샌들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다**, 문의 02-3438-7682

패시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실루엣이 특징이며, 아이코닉한 너를 장식 클로저가 돋보이는 카프 스킨 소재의 주얼 호보 미니 백 3백20만원대 **일렉산더 맥퀸**, 문의 02-6105-2226, 디지털 나 스테파노 플라타워의 협업으로 탄생했으며, 숄어지거죽으로 재주해 부드럽고 견고한 밴디 보스틴 365 3백만원대 **밴디**, 문의 02-544-1925



# For Mavericks

브랜드의 탄탄한 헤리티지와 클래식함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를 창조해내는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MCM이 새로운 2024 S/S 캠페인을 공개했다. 두 톱 모델로 표현한 젊고 당당한 우리 세대만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독일 뮌헨에서 창립한 글로벌 럭셔리 패션 브랜드 MCM. 디자인과 소재에서 늘 새로움과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헤리티지를 놓치지 않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MCM은 독일의 헤리티지와 문화적 시대정신을 계승하는 가운데 이를 제품에 녹이기 위해 기능적 혁신과 최신 기술 및 소재를 활용해 클래식한 디자인을 대담하게 변화시키는 방식에 집중한다.

최근 MCM은 글로벌 최고의 톱 모델들과 함께 새로운 2024 S/S 시즌 캠페인을 공개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영국 출신 배우이자 최고 모델로 손꼽히는 카라 델레비안과 세계 유수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으며 남성 톱 모델로 평가받는 한국인 모델 수민이다. 동서양이 만난 이 캠페인에는 성별과 나이의 제약에서 자유로움과 규제의 경계의 구속을 받지 않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트렌드를 창조하고자 하는 MCM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전 세계 어디서나 활동하는 진취적이고 영한 매버릭스(Mavericks)를 위한 스타일을 선보인다.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인 매버릭에서 파생된 단어, 매버릭스는 전통적인 방식이나 규칙에서 벗어나 진보적으로 행동하는 진취적인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늘 새로운 방법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트렌드 세터 역할을 하기에 모든 트렌드에 앞장선다. 이는 그동안 MCM이 음악, 예술, 여행, 기술과 유대를 통해 대담하고 반항적인 태도와 자유에 대한 열망을 담은 진보적인 활동을 펼쳐온 시대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번 캠페인은 두 톱 모델뿐 아니라 럭셔리 및 패션계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평가받는 파비앵 바론(Fabien Baron), 주목받는 포토그래퍼 크레이그 맥딘(Craig McDean), 스타일리스트 칼 템플러(Karl Templer), 메이

크업 아티스트 팻 맥그라스(Pat McGrath), 그리고 헤어 스타일리스트 귀도 팔라우(Guido Palau)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이렇듯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MCM의 새 시즌 제품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쿨하고 대담하게 풀어낸 것이 특징. 캠페인 컷에서 카라 델레비안과 수민은 가상 세계와 물리적 세계, 그리고 문화적 영역을 자유롭게 누비며 자신만의 세계를 찾는 다이나믹한 디지털 노매드를 표현한다.

이번 S/S 컬렉션의 중요한 피스는 MCM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유니크한 엑스라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토트백이다. 이를 비롯해 테니스를 위한 테니스 백과 슬링백, 로레토

스 팩트로 이뤄진 모던한 디자인의 데일리 백과 특별한 자리를 위한 포인트 아이템이 될 백 등 다채로운 스타일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스포티한 코트와 우아한 더블브레스트 턱시도 재킷 등과 같이 스타일의 경계가 없는 MCM의 레디투웨어와 함께 혁신적인 가죽 제품 및 액세서리, 그리고 새로운 슈즈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군도 만나볼 수 있다. 새로운 캠페인과 제품을 통해 MCM이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적 가치와 클래식함을 패셔너블하게 재해석하는 법 등 패션과 트렌드에 대한 특별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더불어 카라 델레비안과 수민을 비롯한 최고 크리에이티브들이 완성한 MCM의 비전과 헤리티지를 만나보자. **에디터 성영민**

# White Effect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깨끗한 화이트의 매력.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패션 스타일링

전반 D 모티브가 심플함을 베가하며, 미니 사이즈로 어떤 룩이나 귀여운 포인트가 되어줄 나파레타 소재의 알다백 47만원 **다벨**, 문의 02-797-8770, 유려한 곡선 실루엣이 세련된 맛을 선사하고,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으로 높은 실용성을 자랑하는 이르게 가죽 슬더백 3백15만원 **프라다**, 문의 02-3442-1830

글레이즈드 숄어지거죽으로 완성해 유연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동시에 애프터 스트랩이 인공광을 다하는 트리-티 샌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동글린 포인트 디자인이 감각적이고 모던한 무드를 베가하고, 베지탈 가죽을 가진 매끄러운 세미글로시 가죽 소재가 신발을 때 부드러운 촉감을 선사하는 라베카 발레리나 1백16만원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39 **에티 무자경**



1 MCM의 2024 S/S 제품들과 함께 새로운 캠페인에 참여한 카라 델레비안, 럭셔리한 노매드적 무드를 잘 표현했다. 2 MCM의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한 세계적인 톱 모델 수민, MCM의 S/S 신제품들과 잘 어울리는 무드를 연출했다.



Travel\_ 절벽 위에 선 소통과 예술의 공간, 헌터 뮤지엄

# Explore American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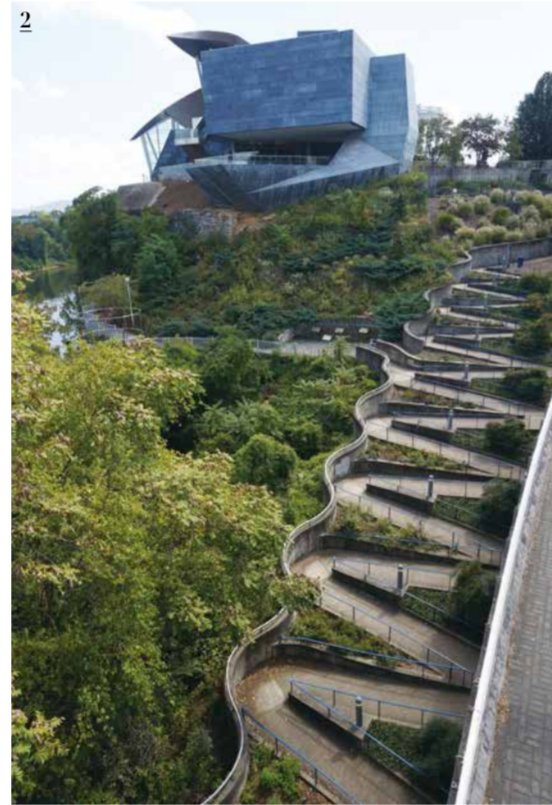
한 도시가 다시 가보고 싶은 공간으로 기억되는 데는 최고의 맛집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도시의 역사와 멋진 건축미를 담은 뮤지엄 하나쯤은 있어야 도시의 이미지가 각인되지 않을까. 서울에 국립 현대미술관이 있다면, 채터누카(Chatanooga)에는 헌터 뮤지엄(Hunter Museum of Arts)이 있다. 미국 남부의 소도시 채터누카에서 어떻게 예술의 공간이 탄생하고 자리 잡아가는지 추적해본다.

창작하고 싶은 욕구는 곧 소통하고 싶다는 의미다. 누구는 말로, 누구는 춤으로, 누구는 그림으로 소통한다.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고 한 피카소의 유명한 말을 빌리자면, 어린이였을 때 우리는 모두 표현하고 싶은 창작 욕구를 느낀다. 그래서 인간은 지우고하기를 막론하고 어디에 살든, 어디에 가든 예술적 표현에 끝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문화적 동물이며,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그는 왜 인간을 지칭할 때 동물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 성경 창세기에서 길게 이어진 흉년에 먹을 게 없어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을 보면 왜 그가 동물이라 말했는지 동의하게 된다. 그러나 종이도 연필도 없던 BC 1500년경 스페인 고대인이 알타미라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린 것을 보면 그나마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임에 안도하게 된다. 그렇다. 인간은 매일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마을이 형성되는 곳에는 반드시 도서관이 들어서고, 미술관이 생겨난다. 생활인은 매일 반복되는 노동에 집중하다, 주말에는 노동과 다른 그 무엇을 하고 싶어 한다.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며 내재된 감성을 자극받고, 조각

공원을 산책하며 피란 하늘, 초록 나무와 어우러진 창작품에 힐링을 얻는다. 우리 인간이 동물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느끼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갈망의 존재이며, 이를 향유하고자 하는 문화적 욕망의 소유자이기 때문 아닐까? 헌터 뮤지엄(Hunter Museum of Arts)은 예술이 전무했던 1950년 초, 미국 남부의 중소 도시 채터누카(Chatanooga)는 지역민과 소통하곤 욕구와 갈망을 느끼던 예술가들을 통해 서서히 지역 예술의 집결지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 숫아오른 바위, 채터누카의 상징

채터누카의 미술가협회에서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언어에서 유래한 숫아오른 바위라는 의미의 지명에 어울리는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테네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서 있는 팩슨 헌터(Faxon Hunter) 맨션을 미술관으로 개조하면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협회는 이 맨션의 소유주인 벤우드 재단(Benwood Foundation)을 찾아가 맨션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1850년대 중반, 절벽 위에는 제철 공장이 있었다. 그로부



터 50여 년이 흐른 후 부유한 보험 중개인 로스 팩슨(Ross Faxon)이 가족을 위해 대저택을 지었고,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1920년, 이 집은 최초의 코카콜라(Coca Cola Bottling)사 창립자 중 한 명인 벤저민 F. 토머스(Benjamin F. Thomas)의 미망인 앤 테일러 토머스(Anne Taylor Thomas)에게 매각되었다. 조지 토머스 헌터(George Thomas Hunter)는 삼촌 벤저민 토머스의 회사 일을 돕기 위해 17세의 어린 나이에 채터누카에 왔다. 사무원으로 시작한 그는 30대 중반에 삼촌의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인이 되었고, 1944년 민간 자원 신탁인 벤우드 재단을 설립했다. 조지 토머스 헌터는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채 1950년 사망했고, 미술협회는 그가 남긴 벤우드 재단을 통해 팩슨 헌터 맨션을 기부받았던 것. 벤우드 재단은 뮤지엄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대하리보다 평소 지역사회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조지 토머스 헌터의 뜻을 살려 기부를 결정했다. 그런 이유로 1952년 7월

시진 문배주, 헌터 뮤지엄 재장

개관한 헌터 뮤지엄의 첫 이름은 ‘조지 토머스 헌터 갤러리(George Thomas Hunter Gallery of Art)’였다. 지역사회에 존재하지 않던 공간이 탄생하는 순간에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술협회 회가들과 뜻을 같이한 벤우드 재단이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하고 밀어붙였기에 ‘유에서 무’를 창조해냈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지금 우리가 이 문화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스트 윙, 웨스트 윙으로 날개를 단 헌터

헌터 갤러리는 코인(Cohen) 컬렉션의 미술사적 회화 및 3천 점에 달하는 작품을 확보하며 미국 근대미술의 역사적 갤러리로 성장했다. 19세기 장르화, 미국 인상주의, 애시칸 스쿨(Ashcan School, 20세기 초엽 미국 예술운동의 하나로, 뉴욕의 빈민 지역을 주로 그렸다), 초기 모더니즘, 지역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1975년 9월, 건물 증축과 개조를 거쳐 드디어 ‘헌터 뮤지엄’이라는 새 이름으로 시민들 앞에 섰다. ‘이스트 윙(East Wing)’이라 불리는 두 번째 건물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유행한 브루탈리즘(Brutalism)이라는 건축양식을 반영해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완성했고, 모던하면서도 웅장한 설계로 권위 있는 건축상을 다수 수상했다. 2005년, 채터누카시는 테네시강이 흐르는 다운타운을 살리기 위한 ‘21세기 워터프런트 계획’의 일환으로 헌터 뮤지엄의 ‘웨스트 윙(West Wing)’ 건물을 증축했다.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웨스트 윙 건축가 윌리엄 스타우트(William Stout)는 두 기존 건물을 모두 존중하고 싶어 했고, 박물관 사쪽 건물이 동쪽 건물과 균형을 이루어 현장에서 가장 높은 지점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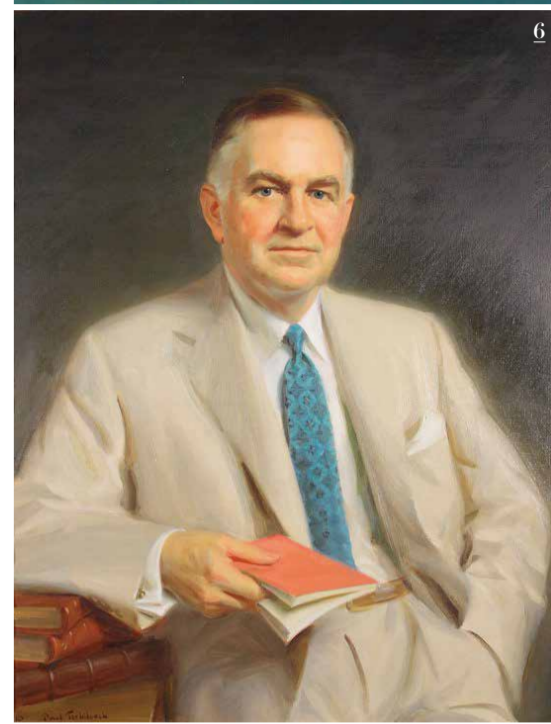
###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뮤지엄

큐레이터 로렌은 사람들이 헌터 뮤지엄을 사랑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동경과 창의적인 출구를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감정을 표현하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예술 작품을 보고 창작하는 것은 뇌파와 신경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창의성은 박물관이나 갤러리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는 창의성을 삶에 접목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 다재다능하고 공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예술은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뿐 아니라 기능적인 사물을 통해서도 매일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예술가의 작품을

이 없었다면 세상은 아주 삭막해졌을 것입니다.” 헌터는 지역주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영구 컬렉션과 단기 전시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이고, 지역 어린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예술 작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트 캠프를 1년 내내 운영한다. 테네시의 많은 학교가 미술 시간을 이용해 헌터 뮤지엄을 방문하고, 해설 봉사자들이 작품에 대한 해설뿐 아니라 예술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10년 전 방학마다 아트 캠프에 참여했던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봉사를 하고, 엄마가 되어 자신의 아이를 데려온다. 헌터 뮤지엄에는 많은 기부자가 있지만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벤트 장소로 뮤지엄을 공개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채터누카를 찾는 최고의 클래식 공연이 개최되거나 연말연시 행사도 열리며, 강가 풍경과 뮤지엄의 모던한 건물이 어우러진 공간은 결혼하는 커플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준다. 장애인 커뮤니티와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놓칠 수 없는 경험, 올해의 전시

지금 헌터 뮤지엄을 찾는다면 근대 아메리칸 미술의 역사를 담은 상실 전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버명엄 출신 작가 에이미 플레전트(Amy Pleasant)의 패싱 스루(Passing Through)가 2024년 7월 28일까지 전시된다. 에이미는 미국 초상화의 전통을 인간 정체성과 행동이라는 현대적 주제와 연결해 비유적으로 풀어낸다. 그녀의 대규모 캔버스와 그래픽은 헌터 뮤지엄의 유서 깊은 맨션 계단 참 벽을 덮고 있다. (네트워크드 네이처(Networked Nature))라는 기획 전시는 디지털 및 뉴미디어 작품, 인공지능, 기계 학습, 실시간 소프트웨어, 맞춤형 알고리즘, 가상 환경에 대한 예술가의 선구적 접근 방식과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소개한다. 이 전시는 칼 & 매릴린 토마 재단(Carl & Marilyn Thoma Foundation)이 주최한다. 1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헌터 뮤지엄의 여름 전시에서는 데이비드 후흐트하우젠(David Huchthausen)의 컬렉션을 소개한다. 스튜디오 글라스 무브먼트(Studio Glass Movement, 절단 톱질, 라미네이팅 및 광학 연마 같은 가공 제작 기술을 활용해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의 최초 예술가 중 한 명인 그는 수정처럼 투명한 유리 형태에 오목렌즈, 복잡한 컬러 패널을 통해 다양한 패턴과 컬러를 빚어낸다. 그의 조각적인 내러티브는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신비로움을 품고 있어 관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5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독일 남부 지방 뮌헨 근교에 위치한 노이슈반슈타인 성(Neuschwanstein Castle)은 디즈니 영화 오프닝에 나오는 성의 모티브가 된 곳이다. 바이에른왕국의 왕 루트비히 2세는 이 성을 짓느라 국고를 탕진한 사치스러운 왕이라는 비난에 시달렸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로맨틱한 캐슬의 상징으로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바이에른주의 재정을 불러주는 주요 관광 수입원이 되었다. 문화의 힘이 이런 것이 아닐까? 헌터 뮤지엄은 누군가의 기부가 씨앗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채터누카의 문화 역사가 되고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 이곳을 방문한다면 채터누카 문화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글 박명희/미국 채터누카 헌터 뮤지엄**

### 채터누카 가는 법

서울에서 채터누카까지 운행하는 직항편은 없다.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이기 때문이다. 대도시 공항에서 채터누카행 국내선으로 갈아타면 된다. 또는 애틀랜타 공항에서 자동차를 타면 2시간 30분 소요되고, 내셔널 공항에서는 자동차로 2시간 20여 분 소요된다.

1 헌터 뮤지엄 테네시강과 채터누카 시가 내려다보이는 24m 높이의 절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강에 반사된 뮤지엄의 모습이 또 하나의 작품 같다. 2 헌터 뮤지엄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힐링 산책로가 되어준다. 3 1904년 부유한 보험 중개인 로스 팩슨(Ross Faxon)이 가족을 위해 지은 대저택. 당시 이곳은 빅토리아시대 재단이 있던 호화로운 동네였다고 한다. 4 1975년 무렵 두 번째 건물 '이스트 윙'을 증축 중인 모습을 담은 것. 당시 유행했던 브루탈리즘 건축양식을 반영해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었고, 모던하면서도 웅장한 설계로 권위 있는 건축상을 다수 수상했다. 5 '이스트 윙' 증축에 이어 2005년 '웨스트 윙'을 지음으로써 헌터 뮤지엄은 양 날개를 달 수 있었다. 6 헌터 뮤지엄의 출발점인 맨션을 기부한 조지 헌터의 초상화. 7 헌터 뮤지엄은 그의 조지팩슨을 소장하고 있다. Lesley Dillib, 1950, 'Woman in Dress with Star', 2011, Bronze, Gift of Lesley Dill, 2023. 1. 8 Tom Ottersness, 1952, 'Free Money', 2001, Bronze, 3/3, cast 2006, Museum purchase, 2007. 1. 9 '인간의 정체성과 행동'이라는 현대적 주제에 미국 초상화의 전통적 요소를 접목한 작가 에이미 플레전트의 작품들.



# Romantic Duo

사랑의 추억은 향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은밀하고 낭만적인 교감을 고조시켜줄 너와 나의 향.  
photographed by oh hyeun sa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꾸레주 오드파뮌 앙프랑즈** 베르가모트, 피츨리, 암브로시 노트의 조합이 상큼하고 경쾌한 무드를 선사한다. 특히 시트레 노트는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세련된 느낌을 더한다. 100ml 25만9천원. 문의 1644-4490 **꾸레주 오드 파뮌 씨** 깨끗한 벨레 향을 선사하는 클린 코튼 노트에 자스민의 활력을 추가했다. 100ml 25만9천원. 문의 1644-4490 **타피나엔코 타피나엔 리브 포** 허 현대적인 느낌의 플로럴 우디 퍼플로, 허우스의 독점 원료인 블루 바질 노트를 시작으로 자몽과 아유러저 상쾌함이 느껴진다. 90ml 26만2천원. 문의 080-850-0708 **타피나엔코 타피나엔 리브 포 힘우드** 베이스의 시트러스 이로부터 향수로 진저, 만다린, 카다멈 오일의 매력적인 느낌으로 시작해 따뜻하게 마무리된다. 90ml 17만5천원. 문의 080-850-0708 **꾸피 뷰티 꾸피 길티 엘릭서 드 파뮌 푸르 올트** 농축한 파슬리 향에 앰버리 가죽 향을 더해 고급스러운 향이 특징이다. 여기에 바닐린 추출물을 혼합해 향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60ml 22만2천원. 문의 080-850-0708 **꾸피 뷰티 꾸피 길티 엘릭서 드 파뮌 푸르 썸** 신선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앰버 플로럴 향의 파뮌이며, 세련된 과일 향이 매력적인 바닐라 앤솔레트와 매력적인 조합을 이룬다. 60ml 26만3천원. 문의 080-850-0708 **벤티 리프트로 보르카이** 기술된 노트와 그린 민트, 알데하이드 이코스티어유라자면서 오묘하고 강인한 오리를 발산한다. 50ml 36만3천원. 문의 1544-5114 **벤티 리프트로 비안코** 부드러운 색감이 떠오르는 향으로 베르가모트와 레몬, 헤이즐넛, 그리고 머스크 향이 은밀하게 조화를 이루어 기분 좋은 순수함을 선사한다. 50ml 36만3천원. 문의 1544-5114 **에디터 윤지경**

이시진

# Feel so Good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욱 즐거워지는 마법,  
홈 데코레이션 아이디어.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크리스털 컵 안에 촛불을 넣어 사용하면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코스티어유라자 **에디터 윤지경** 20만 원대 **비카라**, 문의 02-3448-3778, 훈박 향과 진저의 스페이스 향이 교차되어 유니크한 조합을 이루고, 크리미한 코코넛 밀크가 부드러운 설탕우드와 함께 감은 향을 그려낸다. 이렇듯 유난히 새긴 세라믹 패카지가 공간에 따뜻한 무드를 더하는 파뮌 캔들 **타피나엔코** 18만 원대 **타피나엔코**, 문의 1644-1246, 우아한 등 형태에 가죽 스트랩을 더한 모던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3.5인치 유퍼를 장착해 생생한 시운드를 즐길 수 있는 베오시온드 A1 2세대 그린 **행맨울루스**, 문의 02-518-1300, 둥근 실루엣에 골드 컬러로 장식한 눈의 디테일이 특징이며, 사랑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미피 50만 원 **비카라**, 문의 02-3448-3778, A5 용지 크기로, 지속 가능한 방식을 통해 관리하는 숲에서 공급받은 종이로 만들었으며, 감정을 블루 아크레스크 모티브로 장식한 핸드 드 카르피에 노트 30만 원대 **카르피에**, 문의 1877-4326, 귀여운 캐릭터와 하우스만의 아이코닉한 무늬를 조합해 귀여운 느낌을 전하는 디즈니 X 쿼터 데이 지 더 노트 33만 원 **꾸피**, 문의 02-3452-1521, 유려한 세라믹으로 완성했으며, 화려한 컬러감과 실루엣으로 유니크한 맛을 전하는 프루트피크 옐로 & 레드 글라스 가격 미정 **꾸세나 by 행맨울루스**, 문의 070-8881-8006, 감각적인 프라임이 상쾌한 무드를 자아내는 포슬린 소재의 하모니블 컬렉션 티팟 14만 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은은한 분위기의 촛불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20만 원대의 조도 조절이 가능한 루이즈 31만 원대 **라온**, 문의 1600-1547, 고급스러운 트로피컬 산호 모티브가 특징인 핸드 드 카르피에 트렁크 트레이 세트 60만 원대 **카르피에**, 문의 1877-4326 **에디터 윤지경**

이시진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AND NEW BRACELETS IN BEIGE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 CHANEL

FINE JEWELRY